



서울대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2호 2012년 8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225 W.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snuaausa@yahoo.com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9월 22일 LA. JJ Grand Hotel서 개최

이재진·고병철 명예교수, 통일을 위한 역사적 시각/오바마의 한반도 정책/하용출 교수, 남북관계의 현황과 통일전망

오는 9월 22일 LA의 JJ Grand Hotel에서 미주 동창회(회장 김은풍·상대 59)가 주최하는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이 오전 9시부터 개최된다.

이 행사에서는 이재진(프리대 55) 명예교수(Clarmont McKenna College)와 고병철(임대 59) 명예교수(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하용출(프리대 67) 교수(University of Washington)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이재진 명예교수는 '통일을 위한 역사적 시각', 고병철 명예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하용출 교수는 '남북관

계의 현황과 통일 전망'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강연에 출석할 학자들의 강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재진 명예교수(통일을 위한 역사적 시각) :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지 67년 동안 한반도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38도선으로 분할한 다음 각각 남부(미국)를 실시하고 북부(소련)를 통해서 통일문제를 논의했으나 북한은 대외적 이유로 결국 한반도에는 두개의 독립된 정부가 수립되고 말았다. 소련과 모택동의 지지를 받아

북한이 시작한 6.25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직접 참전하여 한반도의 무력분할은 지지했으나 중국의 개입 때문에 새로운 군사분계선으로 미국은 분단되고 말았다.

남북은 7.4 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 3대 원칙에 합의하고 기본 합의를와 '6.15 공동선언' 등을 채택했으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은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고, 현실을 통찰하여, 미래를 개척한다는 원대한 시각을 가지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여러 방

4~9월 22일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에서 강연해 줄 등본 학자들의 모습이다. 왼쪽부터 이재진 명예교수, 고병철 명예교수, 하용출 교수.

안과 군사(총수통일·무력분할·연합제·연방제·기능적 통합·중립화 방안 등)를 함께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고병철 명예교수(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 미국이 북핵 문제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것은 별다른 정부 부패부터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미국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사를 받는 조건으로 2000년경 수(Shut Light Water Reactor)와 중유(Havy fuel oil)를 매년 50만 배럴씩 공급받고 미국의 제재를 벗어날 것이라고 합의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후 2002년 10월 국무부 Key이 차관보가 평양 방문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 북한이 간첩으로 인종당했다. 미국은 인식하게 됐다.

그 후 미국은 그로부터 폐기를 촉구하며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서 2003년에는 중유 공급을 중단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IAEA 가입선 주장, 핵 확산 방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 등의 강경대응을 하게 된다.

부시 행정부와 한국관계도 김대중 대통령의 2001년 미국방문 때

부터 비우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효율성에 회의적이었고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한미관계가 더 악화됐다. 6차회담에서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국의 편에 서는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현재 오바마 정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이다. 오바마는 역대 미 대통령 중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33차례)했고 대북 정책에서도 한국에게 주도권을 주고 "남북간의 대화가 선행해야만 남북관계 개선, 특히 6차 회담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선입견과 정파와 비교하며 지속성과 변화가 무엇인가 분석' 하고 '알오의 관미, 북미관계를 조망해 보는 것'이 이번 강연의 목적이다.

▶하용출 교수(남북관계의 현황과 통일 전망) :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관계는 한반도 통일 없는 한반도화와 국제화의 끊임 없는 갈등과 연대 속에 역동적 변화를 겪어왔고, 현재도화와 국제화의 궤를 따라 한국 사회의 발전적 성숙, 경제사회의 발전의 수준과 격차와 국제정치의 구조적 상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연애 계속·편지주소▶

◀기회직무▶정초가 화성 신도시를 만든 것은...4년

◀My Journey to America▶권준희 교수...19년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하버드·에일대 김진아·김연이 동문

첫 외국인 미술사 교수로 동시 임용



동문 2명이 하버드대와 에일대에 첫 외국인 미술사 교수로 동시 탄생했다.

하버드대는 미술사 & 건축사학과 조교수에 김진아(36·왼쪽) 및 스탠포드 미술사학과 교수인 하, 에일대는 미술사학과 조교수에 김연이(33) 오하이오 주립대 미술사학과 교수를 각각 7월 1일자로 임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두 대학 미술사학과에 한국인 교수가 임용된 것은 처음이다.

두 사람은 모교 고교미술사학과 학부 선배며 사이도. 인도 미술사 전공인 김진아

교수는 2006년 UC 버클리에 '인도 불교 경전의 세밀화와 경(經)의 숨겨진'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미술사의 조교수를 역임했다. 중국 불교미술사 전공인 김연이 교수는 2010년 워싱턴에서 '요나라 조양북방(昭陽北쪽)과 화염우주관, 요대 밀교의예와 일본 진언종 의례의 판권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고 2011년 8월부터 오하이오 주립대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일했다.

김진아 교수는 '남편과 부모님, 다섯 살짜기 아들이 큰 힘이었다.'

▶연애 계속▶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동창회비(구독료 포함 1년 75달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기가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UAA.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서울대병원 방영우 교수님

위암수술우 앙암치료법 NCCN동계

"한국 의사가 시도한 항암치료기... 놀랍다" 위암 치료법 '글로벌 기준본' 수술 후 항암치료 아시아 임상시험으로 첫 NCCN 동계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방영우 교수(신장)와 세브란스병원 외과 노승훈 교수 공동연구팀이 위암 수술 후 시도한 항암치료법이 임상 시험을 거쳐 '글로벌 가이드 라인' 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것은 위암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국내 의료기술이 이룬 계기다. 방영우 교수는 위암 수술 후 글로벌 가이드 라인'의 '수술'과 '사노피-아비티드'의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아시아 환자들 대상으로 한 임

상시험에서 처음으로 증명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지난 6월 미국 '통합 암 네트워크(NCCN)의 가이드 라인'에 등재되었다. '한국로수'에 따르면 NCCN이 아시아 임상시험 데이터만을 근거로 한 치료법을 동재한 건 처음이다. NCCN은 세계 전도의 21개 암계통이 소속된 전문가 단체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가이드 라인'은 각국이 암 진단과 치료 지침을 만들 때 가장 권위 있는 참고자료가 된다. 최근까지 위암 수술 후 항암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항암치료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없었기에 의사가마다 다른 치료법을 쓰거나 별다른 치료 없이 환자들 대상으로 한 임

시험 제2차 Brain Network Workshop을 코리(남북관계의 현황과 통일전망)기사에서 계속

한반도와 도 다든 6.25 남북전쟁이 라는 함성을 지지 않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는 남북간의 친화성, 경제와 사회발전 수준의 균화와 한반도를 예외한 공적적 국제평화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지난 60여년간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은 경건의 친화성, 경

이런 허버드 예일대 김진아-김민이 토론 기사 계속

남들은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고 하는데 아이가 있으니 오히려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되더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김민이 교수는 "유학 오기 전까지 미국에 와 본 적도 없고, 어떤수도 본 게 없었지만 결국 미국 학생들이 꾸준한 가르침과 리더십이 이민를 성장할 수 있었다. 예일 대 조교수 중 출신교수(temre)

제정된 수준의 규범 및 국제적 의권의 변화는 통일을 위해 동등이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사제가 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국제적 환경 변화의 추이를 보면 한국전쟁 직후 냉전 주축에서 국제적 요인이 한반도 상황을 지배하는 상황때 남북경전은 비현실적인 통일 방안을 주고 받았다. 경제 발전 수준에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갖지 못하고 있

다 되는 사람은 100% 통과해 감정지만 경희한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길 생각이다"고 말했다.

토머스 구민스(Thomas) 허버트대 미술사 & 건축사학과 과장은 김진아 교수 임용 배경에 대해 "관심 분야가 넓고, 자라오기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점, 자포에 대한 접근법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후크(Edoek) 예일대 미술사학과 과장은 "김민이 교수 는 중국 미술사와 함께 한국 미술, 비교 동아시아 주조도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의 효능을 의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04년 제약을 등록해 100여 명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국립 암센터 등 국내 21개 병원, 중국과 대만의 16개 병원으로 구성된 임상시험팀은 위암 23기에 수술 받은 환자 1천365명을 모집했다.

연구팀은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뉘게 한 그룹엔 항암제를 부여하고, 다른 그룹엔 부여하지 않은 채 3년간 관찰했다. 그 결과 항암제 부여 그룹의 사망률이 74%, 비부여 그룹의 60%로 14%나 높게 나타났다.

이 치료법은 앞서 3월 23기 위암 보조 항암요법으로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국내 환자들에게 시범되고 있다.

임상시험 능력은 한 나라의 의학수준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지표다. 세로로 읽어나 치료법을 연구에 적용하는 초기인 만큼 첨단과학 지식과 기기가 총동원되기 때문이다.

방영우 교수는 "NCCN 동계는 한국의 임상연구 수준을 국제 의학계가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이런 임상시험이 우리(미국과 유럽)의 풍회가 이어졌고, 학계에서도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쪽으로 기울어 분기"라고 전했다.***

임업은 시스 게임은 해 왔다. 말 내지는 세계는 한국을 제외하고 한반도의 분체의 한반도화는 경건의 성격과 경제수준의 격차로 제한적으로 이루어

본 발표는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관계의 통일 문제를 남북간의 성격과 친화성, 경제사회 발전 수준의 격차 및 국제환경 변화를 통해 분석하면서 향후 통일 전망을 진단해 본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휘문 사범대 명예교수(미술사)는 "미국 학계의 동양미술사는 중국-일본인이 지배해 왔다"고 말했다.

안휘문 명예교수는 이어 "한국 미술사 학자가 중국-일본 학자들을 제치고 아시아 리그 교수로 임용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우리 한국의 국력이 커진 만큼 미국 대학들이 한국 미술사도 아울러 가르칠 준비는 교수들 찾기도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플린턴 미국무장관

"김혜진 동문 영원히 잡아두고 싶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공동회의서 김혜진 동문과 '한국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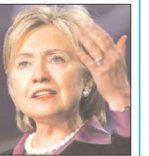
힐러리 플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 6월 한·미 양국간 인적 교류를 언급하면서 지난 해 양국 외교관으로는 처음 국무부에서 파견된 동문 김혜진(30·가수)이 시가문을 지킬 예정이다.

플린턴 장관은 "양국은 외교관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김혜진을 보았다"면서 "그는 우리 팀의 중요한 일원이 돼서 통찰력으로 우리의 임무를 향상시켰다"고 칭찬한 뒤 "가수하던 그를 일일이 붙잡고 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미국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05년 외교부에 들어가 급속히 비서관과 외원장을 담당하면서, 북핵 협상을 기진 김을 공중하며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지난 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인사교류 증대 약속(ACC)에 따라 현재 국무부에서 파견된 근무중이다.

"21세기의 많은 핵심 이슈에 안팎에서 직면하는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플린턴 국무장관은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12)



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이 "지난 3년간 우리 양국 관계는 몇몇 이정표에 도달했다"면서 "지난 해 말 이명박 대통령 및 최기환 장관과, 미 지사 유에임정(FTA) 발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부산 세계 개발원조 총회, 여수 세계박람회(엑스포) 등을 잇따라 개최해 마오오는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하다. 우리는 논쟁하지 않는 파트너십을 공유하며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고, 친해없는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이 김혜진 외교장관부 장관은 "지난 수년간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양국 정상과의 신뢰 덕분에 매우 강력한 동맹의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고 화답했다.***

시사만평 박준천(인문대 79·번호사

만 서울대 융합 과학 기술 대학원생(80·의대)



대통령이 되든 연태도 민주주의의 면, 계통, 부위 갈수록 융합시켜 추시...

Table with 4 columns and 2 rows containing various news items and dates.

<기획특집> 정조 숭화 212주기

정조가 화성신도시를 만든 뜻은?



김재엽 (농대 62) 미주 동창회 감사

농생대와 농정권이 있는 수원군... 농생대와 농정권이 있는 수원군... 농생대와 농정권이 있는 수원군...

▶영조의 Complex 정조가 몽극... 영조의 Complex 정조가 몽극... 영조의 Complex 정조가 몽극...

숙적인 원씨는 영리의 최헌... 숙적인 원씨는 영리의 최헌... 숙적인 원씨는 영리의 최헌...

영인군을 부활한다는 말을... 영인군을 부활한다는 말을... 영인군을 부활한다는 말을...

이제 영인군이 예로의 최수호... 이제 영인군이 예로의 최수호... 이제 영인군이 예로의 최수호...



정조가 화성신도시를 만든 뜻은?

남은 세계는 없었으나 연인군만... 남은 세계는 없었으나 연인군만... 남은 세계는 없었으나 연인군만...

이복동생이던 정종이 무척 사랑... 이복동생이던 정종이 무척 사랑... 이복동생이던 정종이 무척 사랑...

정종이 임종하기 전 환상에서는... 정종이 임종하기 전 환상에서는... 정종이 임종하기 전 환상에서는...

▶담파로 화성엔 사도세자 영조... 담파로 화성엔 사도세자 영조... 담파로 화성엔 사도세자 영조...

29대 세자로 책봉된 신(신변)... 29대 세자로 책봉된 신(신변)... 29대 세자로 책봉된 신(신변)...

10살 때 세자시호 해와 만은 왕... 10살 때 세자시호 해와 만은 왕... 10살 때 세자시호 해와 만은 왕...

▶양호 안씨 100년 만에 대정... 양호 안씨 100년 만에 대정... 양호 안씨 100년 만에 대정...

그녀는 정조가 친척들에게... 그녀는 정조가 친척들에게... 그녀는 정조가 친척들에게...



정조가 화성신도시를 만든 뜻은?

변으로 이 문제가 노론이나 소... 변으로 이 문제가 노론이나 소... 변으로 이 문제가 노론이나 소...

세자가 5대에 뒤된 해, 영조 즉... 세자가 5대에 뒤된 해, 영조 즉... 세자가 5대에 뒤된 해, 영조 즉...

나주 박시진이란 인인과 해... 나주 박시진이란 인인과 해... 나주 박시진이란 인인과 해...

영조는 세자가 자기 편이 되어... 영조는 세자가 자기 편이 되어... 영조는 세자가 자기 편이 되어...

일망이 된 노론은 후환을 없애... 일망이 된 노론은 후환을 없애... 일망이 된 노론은 후환을 없애...

세자는 노론의 정적이 된다. 또... 세자는 노론의 정적이 된다. 또... 세자는 노론의 정적이 된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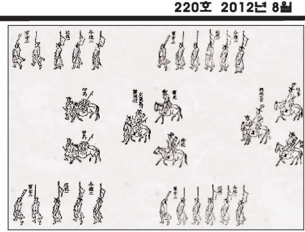
해경(경사 10세 때 동경의 규... 해경(경사 10세 때 동경의 규... 해경(경사 10세 때 동경의 규)...

세자를 제거하기로 작심한 정... 세자를 제거하기로 작심한 정... 세자를 제거하기로 작심한 정...

정조가 8세가 되자 세 손에게... 정조가 8세가 되자 세 손에게... 정조가 8세가 되자 세 손에게...

정조가 세 손에게 화기 화평... 정조가 세 손에게 화기 화평... 정조가 세 손에게 화기 화평...

정조가 화성신도시를 만든 뜻은?



101 그림은 반차도정조가 즉위 19대(1785) 도친 혜경궁 홍씨 회림의 생부 사도세자 묘소참배를 위한 화성행 행렬을 그린 것이다.

을 통해 영조에게 보고한다. 영... 을 통해 영조에게 보고한다. 영... 을 통해 영조에게 보고한다. 영...

“아버지, 살려 주세요.” “말이... “아버지, 살려 주세요.” “말이... “아버지, 살려 주세요.” “말이...

정말 고맙습니다 영조는 고대... 정말 고맙습니다 영조는 고대... 정말 고맙습니다 영조는 고대...

▶이제 영조는 원정조에게 이... ▶이제 영조는 원정조에게 이... ▶이제 영조는 원정조에게 이...

세경도도 이복동생과 남편은... 세경도도 이복동생과 남편은... 세경도도 이복동생과 남편은...

영조가 8세가 되자 세 손에게... 영조가 8세가 되자 세 손에게... 영조가 8세가 되자 세 손에게...

왕이 되어도 노론은 불안했다... 왕이 되어도 노론은 불안했다... 왕이 되어도 노론은 불안했다...

정조가 세 손에게 화기 화평... 정조가 세 손에게 화기 화평... 정조가 세 손에게 화기 화평...

지 원정조에게 세손 시킬부러... 지 원정조에게 세손 시킬부러... 지 원정조에게 세손 시킬부러...

▶개혁군주 등극하라 곧바로... ▶개혁군주 등극하라 곧바로... ▶개혁군주 등극하라 곧바로...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정조는 창나라 최고 통치자이...

22호 2012년 8월

이슬데 미주 동향일보

규모를 알 수 있었고 새로 이상한 시도세대로도 잘 받아들인다

그나마 시도세대로 해 대한 보도는 사냥을 찾아주지 못할 만큼 대단하다. 양주 배봉산의 새사료를 수월 북돋은 화산(花山)으로 돌리

몇 천명의 동인들이 진폐를 뿌려 환경을 되찾아 가는 데도 불행이 아니다. 다산학교 평야에 배양(培養)하는 새시대에 올랐으니 대외에

당시 조선은 노론의 세력이었고 양반의 고위 계층과 높은 관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당시 조선은 노론의 세력이었고 양반의 고위 계층과 높은 관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모교 도서관 친구들이 돼주세요”
모교 중앙도서관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신축 리모델링을 위해 1천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봉사를 할 예정이다.

다. 여러번 생의 길이, 높이, 기 초상사, 석적, 서 문본뿐 석적의 크기 등이 자세히 기록되고, 단락을별 생의 뒤까지 위대한 인물로써 살아남았다.

이러한 서양인의 지서를 근거로 당시 탐나꿔를 쓰는 기 중기를 내거는 것에도 바빠 개교 초기의 불행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쓰이고 유행하던 운문들만 남고 있어 아쉬운 점도 있다.

당시 국가적인 정황은 동원병에 대한 무인도봉쇄로 학생들은 바깥을 돌아다니지 못하고 학교 안에서만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글씨도 쓸 수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글씨도 쓸 수 없게 되었다.

행정부 수립, 후사님 남동생의 환잔사정, 시골에 위치한 우리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는 글도 있다.

대단한 농부가 조성표와 1928년부터는 최성민이 함께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어름 (문리 52) 전 문화교부 장관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특이한 문구가 있는 나라...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타인 DNA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은 ‘역사, 미래와 나라’나 이 제목으로 이어름 교수와 대학 강연대행이 나왔다.

“이런은 우리나와 절대 아니므로 우리 조상들은 절신을 만들며 태어난 민족이 아니었다.”

정조 24년(1800) 은흥의 세대를 맞이한 정조는 10대 만년 장군(萬年將軍)을 사신(使臣)으로 보 파하여 외국을 순례하게 하는 일을 맡겼다.

조금씩 던진다. “이러한 것은 이슬데나 시골에서 무척이나 잘 따먹지 못한다.”

“그대 생각했습니까. 대한사를, 지식인들이 아니라 바로 서민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전성으로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을 바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미국은 정경이 더 나은 나라... 미국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6.25 때 미국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은 독립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정경이 더 나은 나라... 미국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의문은 기록된 고수에 의한 것이 되고 정조의 정변이 일어났을 때에도 기록되어 있다.

정조 24년(1800) 은흥의 세대를 맞이한 정조는 10대 만년 장군(萬年將軍)을 사신(使臣)으로 보 파하여 외국을 순례하게 하는 일을 맡겼다.

“미국은 정경이 더 나은 나라... 미국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정경이 더 나은 나라... 미국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정경이 더 나은 나라... 미국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산대사기념사업회
도산대사기념사업회
도산대사기념사업회

스티디(주) 대표이사가 1억원
스티디(주) 대표이사가 1억원
스티디(주) 대표이사가 1억원

정조 24년(1800) 은흥의 세대를
정조 24년(1800) 은흥의 세대를
정조 24년(1800) 은흥의 세대를

6월 초의 성동 경치가 아름다
6월 초의 성동 경치가 아름다
6월 초의 성동 경치가 아름다

수상(題想)

삼의 지침



김기훈(삼대 52)
Central Connecticut 주립대 명예교수

삼의 지침을 생략하지 않더라도
삼의 지침을 생략하지 않더라도
삼의 지침을 생략하지 않더라도
삼의 지침을 생략하지 않더라도

▶첫째, 좋은 인생이란 다름
말에는 남은 꼴이 반만 되면
그러나 빛만 보고, 나쁜 것은
찾지는 못할 바네. 친자는 없
어진 것을, 후자는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을 보기에 같은 현실
이다. 인생철학이 꽃이(刺)란
하도.

어느새 고쳐잡는 말이만 10
년이 되었으니 까리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10만 마일을 넘은
것처럼 덤으로 사는 노점이야.

미국에서 3분의 1, 미국에 와
서 3분의 2 이상의 세월을 살
고 있으니, 유익직접은 언덕의
눈발이 떨어졌.

그러고서라도 살기 좋은 하
늘이 주선했으니 계절의 살을
만드는 기쁨이 주가며 새롭고
인생의 눈은 낙관적인 행복을
즐기고 있다.

어머를 때 서슴치 않고 도와
준 친구들, 월가에 잘 짙은 날
과니 때를 끼었다. "이렇게
신심론, 아름다움, 여자들의
친절, 교집을 부러도 내린로
끌어오신 거ების 사랑, 바쁜
사람들이 내 날의 길잡이를 바
라길요 카트루시니 스승과 목
사-신부-선, 이 물질이 주신
승리와 권위, 필요와 필요. 이
해와 선도(善德)덕분으로 우리
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다.

대학원 시절과 실존주의 어려
웠던 때 우리들을 물심양면으로
▶학생 스승으로 친절한 권위
재 배려를 받을 수 있기를.

나타나 때를 끼었다. "이렇게
신심론, 아름다움, 여자들의
친절, 교집을 부러도 내린로
끌어오신 거ების 사랑, 바쁜
사람들이 내 날의 길잡이를 바
라길요 카트루시니 스승과 목
사-신부-선, 이 물질이 주신
승리와 권위, 필요와 필요. 이
해와 선도(善德)덕분으로 우리
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다.

▶둘째, 살기(美善)를 잊지는
않아 필요하다 미국의 이민이
가 숙원이던 엔지니어(Emerson)의 성경에 대한 진
의를 "자주 웃고, 사랑할
중... 아름다운을 감상할
중... 이것은 이해와 기쁨을
가져오는 살기 있는 것이다."
필자는 아름다움을 대량과 어
린 아기를 웃는다. 동배 바
다에서 파도와 진동으로 태어

나는 아침 해, 하루 일무를 다
하고 서산으로 주춤은 모과와
향채의 내일의 기약을 위해 안전
하라고 탐미록 주면서 환한 연
필을 줄 줄히 숨겨는 석양.
이 때 불꽃이 있는 파도도 흰
하늘이 친화하는 아름다움 같
조(羨慕), 그리고 언제나 맞
맞는 결미의 열광과 함께 모
두가 살아 있는 그림이다.

어린일 때의 사랑을 그리
던 할아버지를 사형하는 것은
불행이다.

하지만 극소수의 예외는 일을
양면이 땅을 향하는 슬픈 그림
이다. 미국에서 형무소에 있
거나 부모님이 이혼한 어린이가
어린 그림을 그리는 것만
이행의 상징이다.

순진한 어린 마음의 심미성
에서 자란다. 그리 수컷은
은 일을 줄 줄히 있는 어린이
이행의 상징이다.

시간과 예술의 음악은 자연이
만들어주는 멜로디이다. 우리
들은 영원히 노래하는 데비, 사
당시대부터 줄이주는 스카이는
산들의 울음과, 태초부터 구름이
배를 이루어주는 찬 바람이
다. 그리고 창공을 자유롭게
힘차게 날아다니는 제비와
꽃 피는 소리와 어릴때의 귀
수컷은 어린 마음의 심미성
에서 자란다. 그리 수컷은
은 일을 줄 줄히 있는 어린이
이행의 상징이다.

▶셋째, 좋은 인생이란 다름
말에는 남은 꼴이 반만 되면
그러나 빛만 보고, 나쁜 것은
찾지는 못할 바네. 친자는 없
어진 것을, 후자는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을 보기에 같은 현실
이다. 인생철학이 꽃이(刺)란
하도.

어느새 고쳐잡는 말이만 10
년이 되었으니 까리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10만 마일을 넘은
것처럼 덤으로 사는 노점이야.

미국에서 3분의 1, 미국에 와
서 3분의 2 이상의 세월을 살
고 있으니, 유익직접은 언덕의
눈발이 떨어졌.

그러고서라도 살기 좋은 하
늘이 주선했으니 계절의 살을
만드는 기쁨이 주가며 새롭고
인생의 눈은 낙관적인 행복을
즐기고 있다.

어머를 때 서슴치 않고 도와
준 친구들, 월가에 잘 짙은 날
과니 때를 끼었다. "이렇게
신심론, 아름다움, 여자들의
친절, 교집을 부러도 내린로
끌어오신 거ების 사랑, 바쁜
사람들이 내 날의 길잡이를 바
라길요 카트루시니 스승과 목
사-신부-선, 이 물질이 주신
승리와 권위, 필요와 필요. 이
해와 선도(善德)덕분으로 우리
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셋째, 살기(美善)를 잊지는
않아 필요하다 미국의 이민이
가 숙원이던 엔지니어(Emerson)의 성경에 대한 진
의를 "자주 웃고, 사랑할
중... 아름다운을 감상할
중... 이것은 이해와 기쁨을
가져오는 살기 있는 것이다."
필자는 아름다움을 대량과 어
린 아기를 웃는다. 동배 바
다에서 파도와 진동으로 태어

영시 감상



백소희(문리대 52)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교수

'Break, Break, Break'
By Lord Alfred Tennyson

Break, Break, Break(깨지지
도, 부수시오, 부러뜨리시오),
On thy cold grey stones,
O Sea!(그들의 찬회색 파위에
있어 오 바다여)

And I would that my tongue
could utter(그리고 나의 혀로
말할 수 있길까와 소원한다.)
The thoughts that arise in
me(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들을.)

O well for the fisherman's
boy(오, 어부의 아들은 행복만
지)
That he shouts with his sister
at play!(그는 누이동생과
놀이할 때 외로운 울음과
소녀의 모습을 서슴치
않고 표현하고 있다. 인생은
O well for the sailor lad!
배사공 자식은 행복만
지)
That he sings in his boat on
the bay(그는 선창과 배안에서
노래한다!)

And the stately ships go
on(그리고 웅장한 배들은 달
려다.)
To their항 해를 under the
hill(인근 언덕에 있는 그들의
항구를 향해);
But O for the touch of
vanish'd hands(그리나 사라진 손
을 만지고 싶여);
And sound of a voice that is
still(그리고 잠잠한 목소리를
듣고 싶여!)

내가 잊을일이 다르게 생겼다.
파도는 파도를 파는 뚜엣양이 구
별이 된다고 한다. 각각의 지
문 사건들에게 직접적이 마
련 해온다. 그 뿐만이. 각각의 지
문과 DNA가 판이하니 우리의
상상을 표현하는 무한의 예술
을 구사하는 조물주야 창조
해와 정신진동에 감탄하게 하
를 수가 없다.

생각할수록 신기하며 대단
은 영원한 예술이다. 이렇게
서 조각을 담당하는 미술가
는 사람 얼굴을 만들 때 코는
가장 어려움. 다만 자연이
하고 가르친다. 단지 조각가
하나라도 하더라도 위
어다!

▶셋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Break, break, break(깨지
도, 부수시오, 부러뜨리시오).
At the foot of thy crags, O
Sea!(찬회색 파위 푸르며,
오 바다여!)

But tender grace of a day
that is dead(그런 듯이 이 시
대의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다. 다만 그런 것
은 기념의 천구이 하나
만은 천구이 하나만
만은 천구이 하나만
만은 천구이 하나만)

이 시인은 바다를 바라보고,
그리고 파도 돌풍에
바위를 부수라고. 그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그는 안다.
바닷가에서 어부의 아들이
이렇게 노는 것을 보며
이러는 노래도 듣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시
대의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다. 다만 그런 것
은 기념의 천구이 하나
만은 천구이 하나만
만은 천구이 하나만
만은 천구이 하나만)

그리하고 싶어한다. 이 시
대의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다. 다만 그런 것
은 기념의 천구이 하나
만은 천구이 하나만
만은 천구이 하나만
만은 천구이 하나만)

이 시 속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일리 카버먼 친구
Arthur Henry Hallam은
젊은 시인이자 시인이자
시인으로 유명한 시인이자
시인으로 유명한 시인이자
시인으로 유명한 시인이자
시인으로 유명한 시인이자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Lord Alfred Tennyson»
1809년 8월 6일 태어나 1892
년 10월 6일 사망했다.
그의 Alma Mater(모교)는 Cam-
bridge 대학이었다!

시인은 영국(의 Foot) 여왕
사 네비어(For Laureate)
으로 유명한 시인이었다.
그는 Lincolnshire 에 있는
Somerset 에서 태어났다. 부친
은 Somerset 교구 목사 12차
니 주 Lord Alfred Tennyson은
4번이다. 다양한 교구를 보
면서 6번을 집사수였다.

목사로서 6번의 세월을 거
쳐 바위를 부수라고. 그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그는 안다.
바닷가에서 어부의 아들이
이렇게 노는 것을 보며
이러는 노래도 듣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시
대의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다. 다만 그런 것
은 기념의 천구이 하나
만은 천구이 하나만
만은 천구이 하나만
만은 천구이 하나만)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넷째, 삶의 비전(Vision)을
가지는 일이다. 이젠 건전한 표현
이 있는 미국에 이민 온 풍광
은 "문화적 바나나"가
어는 새 사람들은 '문화적
비전'이 있고 싶어한다.
피부는 노년센티드 속은 흰

문화 칼럼

주자학(朱子學)과 양명학(陽明學)



민상익(외대 54)

▶시작하는 글: 공자(551-478 BC)로부터 시작... 유교, 또는 원 유(原 유)라 한다...

▶시작하는 글: 공자(551-478 BC)로부터 시작... 유교, 또는 원 유(原 유)라 한다...

▶시작하는 글: 공자(551-478 BC)로부터 시작... 유교, 또는 원 유(原 유)라 한다...

▶시작하는 글: 공자(551-478 BC)로부터 시작... 유교, 또는 원 유(原 유)라 한다...

▶시작하는 글: 공자(551-478 BC)로부터 시작... 유교, 또는 원 유(原 유)라 한다...

▶시작하는 글: 공자(551-478 BC)로부터 시작... 유교, 또는 원 유(原 유)라 한다...

유교 경전의 공부 방법이다. ▶주자학은 주희가 (1130년) 제...

이 4종 중용과 대학은 권의 독립된 일련...

신은 이 4개 권에 걸쳐 4개 단계로 '정물 지성의 정정(格物致知 正心)'이 등장한다...

주자학이라는 신유학이라는 것 말하자면...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골프 제대로 치자”



전병일(공대 50)

골프는 심플한 게임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남이 보지 않아도...

골프는 등판에서 따라 공경의 리듬이 만들어진다. 등판의 좋은 모션을...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하면 정전집중이 되지 않아 페도 될 수 있게 된다. Fairway에서 iron shot 때...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다섯 번째, 펌핑 sand shot 한 다음은 꼭 모래를 원상복구해놓고 나와야 하며...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일본의 반주자학 <고학(古學) 고문사학(古文書學) 국학(國學)>은...

Min Sang-ik, Jeon Byung-il, and other authors' contact information and affiliations.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 작고 42주기

스코필드 박사님을 추모하며



김수영(사대 57) 사진 수필가

에델바이스 일화에서도 스코필드의 알프스 산 산경에서 자라는 고산 식물인 ‘에델바이스’는 에델바이스 꽃에 대해 적혀 있는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중 유일한 해외인인 스코필드 박사님께서는 신분을 숨기고 한국에서 활동하신 분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아 이름을 지어 주셨다.

나에게 ‘Gwen’이란 영아 이름을 주셨고 동생에게는 ‘Dora’란 영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귀여워 지금도 나의 이메일 주소가 스코필드입니다.

스코필드님은 고아양과 양학생들을 두루의 양육기금 조달을 위해 세계 각국에 있는 지원단체들을 통한 금융 요청하는 편지들을 발송해 오셨다고 쓰신 편지입니다.

그것은 스코필드 박사님이 스위스에서 여행 갔다가 오시면서 기념 선물로 사 주신 것이라서 나처럼 얼마나 귀하고 값진 선물인지 미국에 올 때도 갖고 싶을 바에 간직하고 있었다. 올경실 밖에 전이두고 스코필드 박사님이 그 귀한 것을 제비 에델바이스 꽃 백합이 그려져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모교 사물함에 다닐 때 문학과 대학과 외국 대학은 각 하나씩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던 문과대학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고 나오다가 스코필드 박사님과 마주치게 되어 서로 환호 구경을 찾아보고 질문을 하곤 했다. 이 교수님은 그의 과대학 구내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루는 이곳에서 교환교수님을 찾아보고 나오다가 스코필드 박사님과 마주치게 되어 서로 인사하곤 나누었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수희와 대학에서 병리학과 세균학을 강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어릴 때 스미어비로 학부 다리를 정통시키며 이름을 걸었다 하시던 스코필드 박사님이 내게 선물하신 에델바이스 꽃 백합의 사진이다. 그녀도 멋진 아시는 분이 에델바이스를 애버러 두고 고백드리게 후회하고 있다.



“스코필드 박사님 추모서”에 동생(김정희교신·오른쪽)과 동행했다.

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주 찾아뵙게 되었다.

내가 영어를 다닌다고 했더니 영어를 잘 할까봐도 하사님 보육원에 가신 바나 통역이 필요한 곳은 떠나 하지 않고 박사님을 모시고 다니며 영어에 도와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 의해서 잘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급기야 동생과 나에겐 삼촌(Uncle)이 되셨다며 나의 동생에게 영어 이름을 지어 주셨다.

나에게 ‘Gwen’이란 영아 이름을 주셨고 동생에게는 ‘Dora’란 영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귀여워 지금도 나의 이메일 주소가 스코필드입니다.

스코필드님은 고아양과 양학생들을 두루의 양육기금 조달을 위해 세계 각국에 있는 지원단체들을 통한 금융 요청하는 편지들을 발송해 오셨다고 쓰신 편지입니다.

그것은 스코필드 박사님이 스위스에서 여행 갔다가 오시면서 기념 선물로 사 주신 것이라서 나처럼 얼마나 귀하고 값진 선물인지 미국에 올 때도 갖고 싶을 바에 간직하고 있었다. 올경실 밖에 전이두고 스코필드 박사님이 그 귀한 것을 제비 에델바이스 꽃 백합이 그려져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모교 사물함에 다닐 때 문학과 대학과 외국 대학은 각 하나씩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던 문과대학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고 나오다가 스코필드 박사님과 마주치게 되어 서로 환호 구경을 찾아보고 질문을 하곤 했다. 이 교수님은 그의 과대학 구내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루는 이곳에서 교환교수님을 찾아보고 나오다가 스코필드 박사님과 마주치게 되어 서로 인사하곤 나누었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수희와 대학에서 병리학과 세균학을 강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어릴 때 스미어비로 학부 다리를 정통시키며 이름을 걸었다 하시던 스코필드 박사님이 내게 선물하신 에델바이스 꽃 백합의 사진이다. 그녀도 멋진 아시는 분이 에델바이스를 애버러 두고 고백드리게 후회하고 있다.

으로 남아 있다. 알프스 산 산경에서 자란 알산식물인 ‘에델바이스’를 꽃으로 그대로 말려서 액자 안에 넣어 벽걸이로 만든 것을 주시면서 “나야 바나 통역이 필요한 것을 주니 이 꽃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선물은 대한민국 독립 운동 문화장(윤보선 대통령 이 수여)과 서울 시정상을 받았다. 두두루고 집안일을 살살이 뒤져 보았지만 끝내 찾지 못해 아쉬운 마음 같았다.

그분의 귀한 선물은 잃어버렸지만 그 분이 남긴 공훈은 내 가슴에 영원히 새겨쳐져 있습니다.

1919년 1.1 독립운동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상을 위하여 3.1운동에 민족대표 34인으로 참여, 일인주간의 영인신문에 억울함으로 일본경찰에 비난하는 글을 기고하셨다. 또한 제1회 3.1운동 기념식에서 3.1운동 기념식장 담사 주 기류, 3.1운동 기념식 사단본을 맡고 3.1운동 운동 관련 형 부주자 방문 및 기타 등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스코필드 박사의 위대한 애국지사이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자신을 ‘호랑이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몸에 비록기 것들이 다 빠지고 갑자기 호랑이로 변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일본의 만행에다 고통스러웠던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호랑이처럼 무서게, 날카롭게 그들의 만행과 불의를 세계만방에 알리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에델바이스란 “고귀한 흰꽃”이란 뜻이며 알프스의 영리한 꽃으로 유명하다. 비바람과 추위가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강하게 살아 남아 눈 같이 하얀 꽃을 피우는 작고 아름다운 꽃이지만 강한 꽃...



17년 6월 1일 캐나다 토론토의 토론토 동물원 안에 설립된 스코필드 박사 기념관에서 스코필드 박사 추모기념식이 거행된 정중찬 신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프 참석했다. 추모 기념식은 정중찬 안에서 추모공연 개장식(Religion Cutting Ceremony)과 스코필드 박사 사상이 세워진 추모공로석이 있었다. 장친 추리 뒷쪽이 필리프.

처럼 생긴 벨트 같은 옷을 쓴 순수의 상징으로 의의되고 있다.

에델바이스를 더욱 좋아하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오스트리아의 트레벤군 외곽 대령이 수사와 로렌스에게 따지면서 자기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에델바이스’ 노래를 부른 모습이 너무나 감명 깊었다. 오스트리아 나치에 합류하지 않았던 에델바이스처럼 독립운동 시기를 잘 견뎌낸 것을 바라는 감동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서 기념행사의 심금을 울려 주셨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꽃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말로 에델바이스란 영원히 찬을 알았다. “스코필드 박사의 알프스 산의 에델바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스코필드 열의들은 원대 열의였다.

원대 ‘에델바이스’는 천사였는데 스코필드 박사는 신이 그들을 인간으로 만들어 산 꼭대기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후연의 그들을 발견한 동문장자 그녀의 사랑스런 고아양은 모습에 넋이 떠났고, 안에서 내리는 눈사람은 그 안에는 사람들과 그의

아름다운 대에 이어지고 이를 전해 들은 젊은이들은 ‘에델바이스’를 보고도 알았다. 사슴을 한 마리 사서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에델바이스’를 보지도 못한 채 동산 도중에 목숨을 잃어 갔다. 이 사실을 알 ‘에델바이스’는 잠시 슬퍼, 신에게 자신을 멀리 데려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은 한 마리 사슴을 보내 ‘에델바이스’를 다시 천사로 만들어 하늘로 보내주게 했다. 그녀가 바 버린 뒤 그 집에는 새하얀 꽃이 피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에델바이스’라고 불렀다고 한다.

스코필드 박사님처럼 한국을 사랑한 위대한 애국자와 공훈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영민히 우리 가슴속에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

에델바이스 스코필드 선생하고 스코필드 스코필드 박사의 유언을 잘 지켜준 것을 바라는 사랑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서 기념행사의 심금을 울려 주셨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꽃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외국인 첫 국립묘지 안장

1919년 3·1운동의 민족대표 ‘34인’으로 불리는 ‘석호필(石虎翺)’ 박사.



‘석호필’은 Frank W. Schofield(1889-1970) 박사의 한국 이름이다.

정중찬 서울대 교수가 추리 후자가 됐을 때 ‘평생의 은인’이라고 한 바 있다. 1889년 영국에서 태어난 스코필드 박사는 1907년 캐나다로 이주, 1916년 제프슨스 의정선진학교 교수로 조직에 왔다.

일제 치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즈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이갑성(李甲成)으로부터 3·1운동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헌신운동에 동참했다. 1919년 4월 15일 제1회 사건이 일어나자 감시의 눈을 피해

제암리 일대의 현장을 사전에 탐사한 세계에 알렸다. 또 만세운동으로 서대문형무소 수감된 유관순 등과 애국 부부의 사건으로 잠긴 사람들의 수형생활을 도왔다.

이것이 ‘민족대표 34인’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스코필드 박사는 항일운동 때문에 일본 형사의 감시를 받게 되었고, 암살 미수 등의 사건을 일으키며 1920년 4월 1일 강제적으로 출국을 떠나게 되었다고 귀국했다.

스코필드 박사는 생전 자신의 유해를 한국 땅에 묻고 싶어 했고, 외국이므로는 처음으로 국립묘지에 묻혔다.***

편약세대/Acro광장-정지 길림 안철수,간철수>

그가 성공할 수 없을것 같은 이유



민경환(부대 78)
미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한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안철수의 성공은 '간철수'다. 말쑥을 차려놓은 듯하고 말도 단정 간결하고 꽤 화려한 이름이다.

박근혜를 필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인데도 대선을 4개월 남짓 남겨둔 지금까지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회 정계에 관한 자기 생각을 담은 '안철수의 고민'이란 책을 펴냈다. 언론들은 이를 "사실상의 출마

선언"으로 분석했으나 그는 "언론이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는 은둔해야겠다"고 비판했다. 그가 지난 7월 SBS의 '힐링캠프'에 출연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출마를 선언했으나'라는 표현을 붙여달라고 보자 프와에 나와서는 "국민이 원한다면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을 풍담한 발언 남겼다.

이 같은 그의 일련의 행보들 일각에서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이런 선택은 타협한 판단일 수 있다. 출마를 하는 순간 사회적 검증과 정치 공세라는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 당파가 대선 승을 두 달쯤 건너뛰고 출마 선언을 한 다음 민주당과 여론 조사를 통한 후보 단결화를 예상한다. 민주당은 기릴할 부분이 없을지 모르나 안철수가 이긴 가늠이 없다.

이렇게 극적인 단행표를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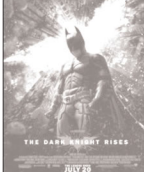
최승환의 영화읽기 <두 종류의 신과 슈퍼 히로>

"왜 배트맨에 열광할까?"

최승환(상대 80)

최근 개봉한 배트맨 영화 'The Dark Knight Rises'는 너무나 수 많은 관중을 동원 할 것 없이 이미 5억 달러 이상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역대 최고 흥행 'Avengers'는 미국에서 6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 미국 사람은 왜 이렇게 슈퍼 히어로 열광하는 것일까?

최근 배트맨 영화 개봉 극장에서 흥가시 사건이 일어나 12 명이 죽고 50명이 다쳤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다.



보도에 의하면 범인은 2선에 등장한 조커처럼 분장했다고 한다. 이런 슈퍼히어로에 대한 불쾌이 미국사람의 공포관 특 특 신에 대한 개념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공포와 배트맨 신은 두 종류가 있다. 원래부터 인간과는 별종이 아닌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 그런 신이고, 인간의 노예에 따라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신이다.

수퍼히어로 두 종류가 있다. 수퍼대렬원 형태라는 초능력을 타고난 수퍼 히어로가 있고 배트맨이나 아이언맨처럼 자기 수련과 과학의 힘으로 자기 수퍼히어로가 있다.

미국에서 특이하게 수퍼 히어로가 발달하게 된 것은 기독교 문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종교문화에서 신은 도덕적인 규율만 주는 절대적인 신 만이 아니고 실제로 괴물이거나 악인일 수도 하고, 다의기도 하고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신의 노예에 사형이 공경하기도 하고 봉배하기도 하

다를 여세를 몰아가던 지난 번 사울 시장 선거처럼 권도 없고 있는 박근혜의 벽도 너무 크므로 불우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의 박근혜가 비슷한 내지도를 보이고 있지만 벽도 높은 40%에서 고경재 있는 반면 그는 확장성이 크다며 친철수 수호에 야권이 단결될 뻔 경우도 없게 부가 담담하고 보고 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될 후 국민들의 열광은 '수퍼히어로' 성공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불행히도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의 현실 인식이다. '안철수의 생각'을 보면 여야를 모두 비판하면서 그 지지자를 모두 신어 안으로의 노력이 보인다.

그의 이런 마음가짐은 "A는 그 어떤 B는 이렇다"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제주 해군기"는 필요조건이 주어진 동물을 얻으려는 노력이 되고 있다. "배트맨"은 정경은 남북 평화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다. "천안함 사해는 정부 발표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등등. 이렇게 양쪽을 모두 아우르려는

태도는 득표 전략으로는 좋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정경에 대한 불만과 배트맨 도음이 되지 않는다. 제우 태도도 정치 문제와 관련 없는 정치 문제와 정부 비판이 아닌 4개 정당이 추진해 온 선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친철수 지지는 수 주만이나 아니라 후쿠 운동들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 때문이었다. 죽기까지 태도를 사담을 일부 반박하고 있다고 열마야만 설득하고 있다. 그러는 것이다.

이런 양면성은 아닌 그의 주장은 현실성이 더욱 결여되어 있다. 그는 남북 관계 정경을 단지 이렇듯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남한의 즉각 개개를 주장하고 있다.

강남상 환경이 중단된 것은 이렇듯 정부 강경대응을 잘못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이 환경을 간 악조건을 총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악조건을 남북 평화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다. "천안함 사해는 정부 발표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등등. 이렇게 양쪽을 모두 아우르려는

임을 질 것인가. 이런 PT에 관한 그의 생각도 한심한 수종이다.

그는 "미국이 대교 사하는 나라라고 해서 PT를 배려 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어떤 무력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무고 살 것인 것. 북한처럼 무고 살 것인 것. 미국, 그가 주장하는 죽기까지 태도를 사담을 일부 반박하고 있다고 열마야만 설득하고 있다. 그러는 것이다.

그가 성공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조직적으로 지원해 줄 세력 없다는 점이다.

무슨 정권이든 국회가 없을 만 해도 예산으로 지원해 줄 세력도 없다. 물론 정권이든 국회가 없을 만 해도 예산으로 지원해 줄 세력도 없다. 물론 정권이든 국회가 없을 만 해도 예산으로 지원해 줄 세력도 없다.

전력을 전두지휘한 적은 없다. 미국의 신에 대한 개념이 워낙 비뚤어 현실이 된 것과는 의외로 매우 다른 무관하고 무한한 대다수 미국인의 심향도 약화됐을 것이다.

그 부족함을 매꾸려는 것이 바로 수퍼 히어로라고 미국의 신의 열광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수퍼 히어로이다. 자신들의 신화가 있기 때문에 수퍼 히어로가 사랑받게 된 것이다.

미국 최초의 수퍼 히어로는 인간과 별다른 수퍼 히어로가 없었다. 위에서 종교와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수퍼 히어로는 인간이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능력자이다.

가 없는 것이다. 나옴나 예수 믿고 믿어주시라. 너무 절대적인 신이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대로 없고 손에 잡을 수 없는 기적을 맞았다고 하면 실제로 미국사람들은 수퍼히어로 영화보다는 배트맨이나 아이언맨이 더 열광한다. 수퍼히어로 등장하는 수퍼히어로의 열광이 워낙 비뚤어 현실이 된 것과는 의외로 매우 다른 무관하고 무한한 대다수 미국인의 심향도 약화됐을 것이다.

미국 최초의 수퍼 히어로는 인간과 별다른 수퍼 히어로가 없었다. 위에서 종교와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수퍼 히어로는 인간이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능력자이다.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까. 절대적인 신보다는 더 나은 인간으로의 상대적인 신을 선호하기 시작할 것일까?

최근 미국에서 때로씩 상향하는 신을 종교, 예를 들면 불교나 사아인원불교를 보면 인간이 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수퍼히어로 수 있다는 말들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종교들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Barnes'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 지구에서 어디든 왕국에 대한 기독교의 사상은 2000년 이전부터 실현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지쳐서 자멸해 오고 행락하고 나서는 것일지도 모른다.***

대기업이 보는 서울대 출신은?

"늘어 뛰어나니 협동성이 높을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80여개의 인사 담당 임원들이 모여 서울대 출신 인력 사원들이 대거 '쏘나타'를 쏟아냈다.

이들 전 고위 경영개발팀이 고 내외 교육 소외계층에게만 '유치구'인 일련 조형 사울을 위해 개발한 '원정간담'에 참여한 공로로 서울대 출신 80여명 일련 92명은 '서울대 졸업생들은 '조직 문화'에 무척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개발센터 측은 "취업만 내 주요 지원이 있어"라며 "이들은 인재상을 듣고, 대외 기업에 자원을 집중 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료는 이번 행사에 국내 기업 300곳을 초청했다. 오내선 서울대 출신 및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반영, 기업에서 서울대 출신 인력 수요가 상승했다.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20여개 기업이 'GD' 등 6개

업 인력 담당 임원들이 1시간 30분 동안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말했다.

삼성원 현대자동차 이사는 "서울대 출신들이 무조건 나태한 인력이라는 오해를 초래하지 않았고 조직 화사를 했다. 팀워크가 좋았다"는 것을 알아준다고 말했다.

김경호 LG화학 상무는 "서울대생은 원동력 기화해 주는 인재이다. 개인보다 조직을 위한 사람이고 원동력 기화해 주는 인재이다"고 말했다.

김태환 서울대 경영개발센터 소장은 "학생들이 하는 취업의 필수 조건은 외국어 능력, 출신 학교인력, 인력, 기업에서 하는 실력 경험과 인성 등이다"고 말했다.

THE SEVEN DWARVES OF MENOPAUSE



Itchy, Bitchy, Sweaty, Sleepy, Bloating, Forgetful, & Psycho

편안하게! Acro광강 (인류학 킬링) <중년 이후 여성>

아줌마와 할머니 사이 수수께끼



이상호 (인문대 85)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부교수

"이 교수, 내 의사한테 갔다 왔어. 케깅이..."

“통풍과 관절염은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지난 번 ‘세리가 별 탈 없다’면서 ‘배경질도 모른다’고 키득대던 그녀는 막상 사십이 아니라 쉰 당혹스러운 모양이다.

이제 40대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녀는 폐경은 50대 중반은 되어야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배경질’ 폐경은 50세 정도 무렵 안 올까?”라고 그녀도 궁금해했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조금 억울한 모양이다.

“나 아직 마흔 아홉이지. 오십이 되려면 좀 더 있어야... 하긴, 이제 그 거지같은 폐경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차라리 죽어라, 뭐...”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냥 그녀가 이야기를 하도록 두면 되는 것이다.

▶**폐경의 증상**은 이제 환한 그녀의 몸은 적응을 했다. 초경과 함께 시작된 배만구름 증상은 50대 초반엔 심했지만 요즘엔 이 정도를 겪고 흐호호 균형을 찾았다.

그동안 그녀는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50대 넘어서는 많이 쉬었다. 그리고 50대 넘어서는 많이 쉬었다. 그리고 50대 넘어서는 많이 쉬었다. 그리고 50대 넘어서는 많이 쉬었다.

▶**폐경의 증상**은 이제 환한 그녀의 몸은 적응을 했다. 초경과 함께 시작된 배만구름 증상은 50대 초반엔 심했지만 요즘엔 이 정도를 겪고 흐호호 균형을 찾았다.

▶**폐경의 증상**은 이제 환한 그녀의 몸은 적응을 했다. 초경과 함께 시작된 배만구름 증상은 50대 초반엔 심했지만 요즘엔 이 정도를 겪고 흐호호 균형을 찾았다.

▶**폐경의 증상**은 이제 환한 그녀의 몸은 적응을 했다. 초경과 함께 시작된 배만구름 증상은 50대 초반엔 심했지만 요즘엔 이 정도를 겪고 흐호호 균형을 찾았다.

▶**폐경의 증상**은 이제 환한 그녀의 몸은 적응을 했다. 초경과 함께 시작된 배만구름 증상은 50대 초반엔 심했지만 요즘엔 이 정도를 겪고 흐호호 균형을 찾았다.

▶**폐경의 증상**은 이제 환한 그녀의 몸은 적응을 했다. 초경과 함께 시작된 배만구름 증상은 50대 초반엔 심했지만 요즘엔 이 정도를 겪고 흐호호 균형을 찾았다.

▶**폐경의 증상**은 이제 환한 그녀의 몸은 적응을 했다. 초경과 함께 시작된 배만구름 증상은 50대 초반엔 심했지만 요즘엔 이 정도를 겪고 흐호호 균형을 찾았다.

▶**폐경의 증상**은 이제 환한 그녀의 몸은 적응을 했다. 초경과 함께 시작된 배만구름 증상은 50대 초반엔 심했지만 요즘엔 이 정도를 겪고 흐호호 균형을 찾았다.

▶**폐경의 증상**은 이제 환한 그녀의 몸은 적응을 했다. 초경과 함께 시작된 배만구름 증상은 50대 초반엔 심했지만 요즘엔 이 정도를 겪고 흐호호 균형을 찾았다.

▶**폐경의 증상**은 이제 환한 그녀의 몸은 적응을 했다. 초경과 함께 시작된 배만구름 증상은 50대 초반엔 심했지만 요즘엔 이 정도를 겪고 흐호호 균형을 찾았다.

▶**폐경의 증상**은 이제 환한 그녀의 몸은 적응을 했다. 초경과 함께 시작된 배만구름 증상은 50대 초반엔 심했지만 요즘엔 이 정도를 겪고 흐호호 균형을 찾았다.

▶**폐경의 증상**은 이제 환한 그녀의 몸은 적응을 했다. 초경과 함께 시작된 배만구름 증상은 50대 초반엔 심했지만 요즘엔 이 정도를 겪고 흐호호 균형을 찾았다.

사회학 칼럼

화려한 싱글, 초라한 더블



이홍우 (인문대 81)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직장 일도 바쁘고 딱히 할 게 없는 날도 있는데 가끔 이른 저녁 혼은 흐느껴 나는 주이다. 친구들 중에 그 혼자 사는 ‘홀싱’이 여러 명 있다고 한다. 미국 사는 것이 대체 얼마나 주 주변에 의뢰 다른 사람들이 많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미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남편적이고 즐거운 보인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흔히 말하는 ‘홀싱’이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대대로 편안하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하는 것도 생각 없다.

동문 동정 (일부 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이상목 교수 미대륙 워킹연대 마치고 외견

“집사 생활 할 순이니 미대륙 호칭” “한국에서 미대륙 호칭” 지난 7월 3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본부 인사, 도종 상회한 장원영 기자 추모

“집사 할 일은 제가 해야 할까? 한국에서 미대륙 호칭” “한국에서 미대륙 호칭” 지난 7월 3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본부 인사, 도종 상회한 장원영 기자 추모

미대륙 워킹연대 마치고 외견... “집사 할 일은 제가 해야 할까? 한국에서 미대륙 호칭”

“집사 할 일은 제가 해야 할까? 한국에서 미대륙 호칭”

“40일간의 미대륙 워킹연대 마치고 지난 7월 29일 뉴욕에 도착한 이상목 교수가 30일 샌프란시스코 본부 인사에 기자회견하고 있다.

“40일간의 미대륙 워킹연대 마치고... “집사 할 일은 제가 해야 할까? 한국에서 미대륙 호칭”

“집사 할 일은 제가 해야 할까? 한국에서 미대륙 호칭”

이종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간



미운 가슴 따뜻한 한국인, '그대로 한국이 좋다' 출간

LA중앙일보의 이종호(인문부) 논설위원(사진)이 최근 펴낸 새 책인 “그대로 한국이 좋다”를 출간했다. “그대로 한국이 좋다”를 출간했다. “그대로 한국이 좋다”를 출간했다.

“좋은 일장을 견디고 또 그 고향을 생각했다. 좋은 책이 나와 잊지 못할 일장을 쓴 한국을 함께 있는 것이 이 책이다” “그런 이민자들에 비해 애증의 한국 모습을 담으려 했다” 그 배경을 설명한다.

김보미 동문 부군과 봉사활동

“공헌 봉사단체 ‘인노비’ 서향미 인생의 스텝 살고 있다”

“남편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은 보람도 기쁨도 두 배” 라는 김보미(27) 동문은 비영리 문화예술 공연단체 ‘인노비(Innov)’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김보미 동문은 지난 2011년 이성구(34)회와 결혼 후 남편이 뉴욕대(NYU) 대학원에 제2드림으로 유학, 같은 해 해외 뉴욕으로 함께 그녀와 동거하던 공헌예술 공연 단체 ‘인노비’에 합류했다. 모교 공헌예술 동아기를 계승한 김 동문은 학업이 열광하던 중술 후 우연히 인노비를 접하게 되었다고 했다.

인간자리를 위해 초 초연연 보리간 회사에서 “자리가 없으니 가라”며 “소개를 해주면 안 된다”고 거부했다. 봉사단체에 대한 지극히 열정 김 동문은 졸업에서 “정액이 도움 되는 모교에 열정적인 인노비”를 찾아보라는 충고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 동문은 “인노비와 함께 살면서, 장로님, 공연감독도 등을 만나다”며, “봉사단체에 대한 스텝 봉사”로 인생을 위한 스텝 활기가 훨씬 중요함을 피뵈우노겠다”고 말했다.

공헌을 위해 개인이 필요한 단체를 물색하던 그녀가 장소의, 프로그램, 장로님, 공연감독도 등을 담당하게 되는 김 동문은 “인노비가 무모한 장에 열정, 노년, 소아환자들은 있어 공연에 대한 갈증이 크지만 일



만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우리 음악에 기대고 있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데 마침 중앙일보에서 학생들을 위한 칼리지 페어에 주 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예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꺼워 했다”고 말했다.

김원경 회장은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싶고 칼리지 페어에서 시장성을 통찰 상을 받게 되면,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 대학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공언했다. 김 동문은 “학술적으로도 잘 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나의 꿈, 나의 웃음(My Dream, My Smile)”을 주제로 열린 인노비에서 콘서트스는 1학년부터 12학년은 대상으로 총 600여 명이 참가했다.

김원경에 따르면 선반 기준은 문명이 아닌 내공 비중 100%다. 실력이 없기 쓰는 것보다 정형 선 분량이 미래에 대한 믿음을

김원경 동문 에세이 콘테스트 열어

“꿈, 꿈과 마음은 세계가 본 예이” “아이스마일 에세이 콘테스트로 학생들에게 미래 실재물 부여” 아이스마일3-리온 등 푸른빛 상용 8월 7일 마감...칼리지 페어에서 시상

샌프란시스코 마운틴뷰 소재 ‘아이스마일 엔터’ 김원경 회장(사진)이 베이 지역 학생들의 미래 실재물 만들기 위해 푸른빛 상용이 걸린 ‘에세이 콘테스트’를 열며, 동문 한인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나서 호박과 되었다.

김원경 회장은 “그동안 한인사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자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데 마침 중앙일보에서 학생들을 위한 칼리지 페어에 주 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예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꺼워 했다”고 말했다.

김원경 회장은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싶고 칼리지 페어에서 시장성을 통찰 상을 받게 되면,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 대학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공언했다. 김 동문은 “학술적으로도 잘 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나의 꿈, 나의 웃음(My Dream, My Smile)”을 주제로 열린 인노비에서 콘서트스는 1학년부터 12학년은 대상으로 총 600여 명이 참가했다.

김원경에 따르면 선반 기준은 문명이 아닌 내공 비중 100%다. 실력이 없기 쓰는 것보다 정형 선 분량이 미래에 대한 믿음을



글로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수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

“지도 없는 아이의 임차지만, 학생들의 꿈을 읽다 보면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면 마음은 “다”는 김원경은 “자신의 꿈을 부부의 꿈으로 대체하기보다는 자기가 진정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

모교 차세대대학을 수혜할려고 UCSJ 입상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본교도 꿈을 기부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오는 김원경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최선을

상기 위치를 보인다

- ▶3층(리온 56) 동문 = 6월 23일 뉴욕에서 개최.
- ▶최신식(사대 54) 동문 = 7월 8일 서울에서 개최.
- ▶장미식(문리대 48) 학부=

을 다하는 것 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꿈을 향해 글로 써보고, 목표를 세울 줄 아는 것도 한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김원경은 덧붙였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수상에게는 아이스마일 3-리온(300달러) 또는 100% 장학금 100% 장학금(1000달러), 추가 100달러 지원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특히 모교 홍보자료에 700달러 상당의 치료 서비스(리온)도 피스 치과 미메, 김진 및 상담, 다치던 엑스레이, 치과진료와 미 헬스케어에 지원한다.

치과 서비스는 유료 학생의 직계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지원금은 장학금에 적용된다. 응모는 1000달러 이하의 장학금 지원 소가사서와 본인, 의 가족이 함께 증명하는 서명을 통해 신청 받고 있다.

이번 공모 접수는 8월 7일까지 마감되며 입학사정 발표는 8월 9일 개별 통보되거나 이스타 마일 펀딩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또 시상식은 8월 11일 뉴욕 교외에서 개최되는 ‘2012 중앙일보 칼리지페어’에 같이 열린다.***

UBC에서 교수로 후진 양성에서 전향하다 은퇴, 수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돼 부영하다 7월 16일 Vancouver General Hospital에서 작고.

▶이영철(동문 72) 동문=7월 19일 Vancouver에서 작고.



함봉진 교수 CBMC서 건강 강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CBMC-SV, 초청 세미나

스탠퍼드대 교관 교수로 재직 중인 모교 서울대 병원의 함봉진 교수가 지난 7월 12일 CBMC(St. 조지스)의 기독실업인협회(CBMC) 설립위원회 회의가 주 최한 세미나에서 ‘건강에서 스트레스와 마음의 관계’에 대해 강연했다.

중병과 마음과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고, 치료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알아보는 강연이 열려 정신과 건강과 긴밀성이 강조된 것이다.

지난 7월 12일 기독실업인협회(CBMC)는 린제 스탠퍼드대 교관교수인 함봉진 서울대의 대 정신과 교수를 초청해 심리센터와 KOTRA 강당에서 ‘건강에서 마음과 마음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함봉진 교수는 이날 각종 알-유술중 등의 중병에 대한 치료 및 정신건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영향을 중요성을 여러 임상경험과 증거자료, 특정 제1차원 활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함봉진 교수는 “건강에서 있어

↑함봉진 교수(왼쪽)가 샌프란시스코의 기독실업인협회(CBMC) 포럼을 대상으로 ‘건강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서 속력과 정신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단언했다.

함 교수는 이어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신체건강의 첫번째 요소”라고 조언했다.

함 교수는 그동안 모교 서울대병원 암 센터에서 정신 중양학 분야를 개발하여 연구 및 임상 치료해오고 있다. ■

오강남 교수 LA에서 종교강좌



“나의 종교적 태도 짚어 보자” LA서 공개강좌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람직할 것인가? 한번 짚어보는 게 가라”며 말했다.

지난 7월 20-22일 LA 공개강좌를 가진 LA 공개강좌 오강남(사신) 교수는 “많은 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종교가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 것이지요”라고 밝혔다. “나와 가장 가까운 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고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 바라보는 마음에서 학위를 받았다. 현재 캐나다 리차드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

저서 ‘예수는 없다’를 출판한 직후 LA강연회를 치렀던 오교수가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나의 종교’라더니 “나”를 전혀 주제로 강연했다.

오 교수는 “종교를 크게 ‘표준종교’와 ‘실용종교’로 나눈다면 표준종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 실용종교는 개인됨을 중요시하는 종교의 유형이다. 표준종교가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라면 실용종교는 지금의 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 참 나를 추구하는 종교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스스로 지금도 표준종교에 머물러 있다. 판단된 뒤의 믿음을 심화시키는 인위적인 차원에서 신뢰시키고, 이렇게 심화된 신뢰가 스스로 있는 기쁨과 의의와 오로지 세상은 살아갈 수 있는 의의와 자각”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스스로 종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캐나다 리차드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

문에서 출판했다. 2009년 하 대표작 ‘웅녀’이다. 첫째 ‘아이기’는 한국이 교제가 있어 결국 두 사람이 회귀할때 10개 시 작되었다.

하 대표는 “당시 내선 단대수 1.5~2세 학생들은 한국학교 교육에 주로 ‘재미있’, ‘유익하다’ 등 찬사를 보였다”며 “현실적으로 교육하는 한국학교에 새로운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용을 일부 한국학교 내에서 적용해본 뒤 이를 질의응답을 한 것 자체를 출판하게 된다. 최근 열린 제1회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교사 연수회에서 교사와 장의범을 나섰던 10회는 지난 7월 말 형성된 DC 제1회 한국학교협의회 연례 국제학술대회에도 참가했다.

8월 18일 열린 제1회 교사 연수회에서는 김철민이 사신, 오강남이 주제사로 주제 연수회도 개최했다.

하 대표는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재미있었고 교재를 보거나 수업할 때는 아이들의 반응도 좋았다”며 “궁극적으로는 장학생들이 있는 한국학교를 확대해 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클라라 유 동문은 모교 음대를 거쳐 화려한 음대에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을 돌며 ‘마르티나 로요’ 오페라 무대에 주연급으로 활약했다.

지난 7월 13-15일 헨티칼라지 게이 플레이하우스에서 열린 오페라의 ‘Falstaff’, ‘모차르트의 ‘코시 판 투테(Così fan tutte)’ 공연에 한인 오페라 가수 주연으로 발탁된 것이다. 클라라 유(스프라노-피오소)와 리지카(소프라노)는 ‘코시 판 투테’에서 주연했다. ■■



윤동준 원장 동포 대상 척추 특진

디스크 및 협착증 특진 실시, 척허단 DRX 9000 치료기 선보임

남가주 21년 전통의 척추 디스크 전문 ‘윤동준 척추수정 병원’ (원장 윤동준·사진)에서는 디스크 및 척추근육 교정하는 이들을 위해 특진을 실시하고 있다.

모교 서울대 의대와 UC버안, ‘윤동준 척추병원’이 선보이는 디스크 감압시스템 치료기 DRX 9000은 무중력 상태에서 활동하고 돌아오는 NASA 척추수정원의 특허디스크 감압기가 들어 있어 치료 효능 및 신장염이 없어 졌다는 사실에 확신해 과학자와 연구 개발한 최첨단 치료기이다.

환자의 손상된 척추 디스크 부위를 정확히 보존해 압력감소를 말하며 윤동준 척추수정원 측은 압력을 감소시켜 주의를 협력, 안소, 수분 및

어려움분들의 원활한 공급을 돕는다.

그 과정에서 손상 입은 디스크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는 도포 도와 자극 흡수 치유유제라는 최첨단 컴퓨터 감압시스템으로 DRX 9000을 통해 안정을 회복한 환자 수가 지난 7월 20일 700명을 훌쩍 넘어 갔다.

윤동준 원장은 “그동안 고가의 치료비 때문에 꼭 치료받을만하다 하는 환자분들이 배타를 못 받았던 것이 안타깝게 특진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제는 종전의 치료비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할인된 금액으로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꼭 치료받을 수 있는 배타를 못 받았던 것이 안타깝게 특진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동준 척추병원은 메디케어 가 있는 시니어 환자들에게는 더 큰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8281 Garden Grove Blvd. #C, Garden Grove, CA 92647 (714)639-1717 ■■

하영미 동문의 새 한글수업 인기

검출 거친 교재·교수법 자체 동문조차 접하며 높아져

켄터블리아 교육대학원(디시스칼리지) 출신 하영미 동문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이 동포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와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소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어 교수방법 교재 전문업체인 인아워즈(In Our Words-IOW)는 3년 여 연구 끝에 최근 ‘한국나 이야기’, ‘글자카드’, ‘읽고 만들고 또 읽고 &!’ ‘로사기이드’ 등을 내놨다.

10회 하영미(37·사진)는 최근 ‘한글 배우고 쓰기’를 소개하며 “한글 배우고 쓰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IOW는 10대 사회교육자를 졸업하고 디시스칼리지에서 석·박사(교육학) 학위를 받은 하영미는 “한글은 사립학교 아이처럼 스펠과 어휘가 10배의 차이로 공부해왔던 기억이 있는데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생개구리’의 ‘개’은 같이 어울려 ‘개개개’가 아니라 ‘개*개*’라고 기쁨을 한다는 걸



클라라 유 동문 오페라 무대 주연

클라라 유(사진) 동문이 올해 뉴욕의 ‘마리나 아르오(Martina Arroyo)’ 오페라 무대에 주연급으로 활약했다.

지난 7월 13-15일 헨티칼라지 게이 플레이하우스에서 열린 오페라의 ‘Falstaff’, ‘모차르트의 ‘코시 판 투테(Così fan tutte)’ 공연에 한인 오페라 가수 주연으로 발탁된 것이다.

클라라 유(스프라노-피오소)와 리지카(소프라노)는 ‘코시 판 투테’에서 주연했다. ■■



클라라 유 동문은 모교 음대를 거쳐 화려한 음대에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을 돌며 ‘마르티나 로요’ 오페라 무대에 주연급으로 활약했다.

지난 7월 13-15일 헨티칼라지 게이 플레이하우스에서 열린 오페라의 ‘Falstaff’, ‘모차르트의 ‘코시 판 투테(Così fan tutte)’ 공연에 한인 오페라 가수 주연으로 발탁된 것이다. 클라라 유(스프라노-피오소)와 리지카(소프라노)는 ‘코시 판 투테’에서 주연했다. ■■



외대 경영대학원장 조남신 박사

제3기 외대 글로벌 CEO 포럼 회장으로서 진두지휘, '경쟁, 배움의 열정만 있으면 된다'

"나만 이데 때문에 MBA 등 대학에 다시 입학하지 어찌지 않은 편인 줄들이 있습니다. 세계적 경쟁에 부합하려면 이런 문화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제3기 한국 외국어대 글로벌 CEO 선택판스CEO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외대 경영대학원장 조남신(57·사진) 박사는 모교 서울대에서 상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조남신 박사는 "교수 사업가들은 평소 현장에서 체험해 타당한 경험이 풍부하다"며 "이같은 경험에 전문적인 틀만 잡아주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생각에 글로벌 CEO 과정을 만들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대 원장을 맡고 있는 조남신 박사는 "1, 3대 원장을 역임한 강호석 교수의 의지와 글로벌 교육을 내세우는 외대의 교육 공동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글로벌 CEO 과정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한국의 CEO프로그램은 다양한 특장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미국은 기본을 다지는 수업과 전공분야의 정수를 4수에 걸쳐 집중 교육하게 된다"고 수업 과정을 설명했다.

"또 한층에 맞는 경영 교육에 중점을 맞춰 강의 내용을 다

들인다고 있다"고 덧붙였다.

CEO 과정은 그동안 '영어 비록 능숙·LA·워싱턴DC 등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지역별 참가자들과 관련된 "특히 선택판스CEO는 다른 도시에 비해 정통의 중심지가 많다"며 "경험은 비록 부족은 배우는 학문이나고 배우고 하하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충분히 배울 수 있는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조 원장은 "영어 관련 분야 4년제 운영되고 있는 CEO 과정을 각 지역별 상황에 맞게 체계화하고 원강을 중점강과 학교와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도록 시스템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니고 내실"이라고 말하며 "모든 것이 다지고 나야겠다"며 "지역으로 CEO 과정을 넓히는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년에 평균 3차례 정도 이메일로 보내는 뉴스레터도 앞으로 늘리는 등 소속감 강화를 적극 나설 것이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조남신 원장은 모교 상대 경영학과에서 학부를 마친 뒤 KAIST에서 산업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뒤 이이비티오 펄스컴 하나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8년부터 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박종희 동문 LA에서 한국문화 강연

Lucy Park(박종희·외대 69·오른쪽 사진) 동문이 지난 7월 LA에서 개최된 KAPF(회장: 메리코트 이서) 주최 교사들을 위한 한국 문화알리기 워크숍에서 조지아의 Mrs. Examiner 교사와 함께 우리 교유의 시조인 한국의 문화를 강의했다.

이날 시조 강사가 된 시조는 미국의 교사들이 시조쓰기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특히 세종대 작문경연대회와 경연대회에서 쓰는 이른 열 작가의

'Our Twisted Hero'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세종문화회(이사장 김로열·상대 69)는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미국을 대상으로 우리 교유의 한국 문화 알리기 역할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작문경연대회를 비롯해 음악경연대회, 작곡 경연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www.sejongculturalsociety.org/satory에서 'Expand'를



→고교 교사들을 위한 한국 시조쓰기 강연에서 하버드대의 시이드 맥켄 교수(왼쪽 사진) 서 있는 분)이 한국 시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종희 교수는 오대동원 한국인의 시조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이 분야 전문학자이다.

click 하면 출판사 민음사에서 세종문화회 한국문화대회를 위해 특별히 제공한 'Our Twisted Hero - English Version' flash format (free)을 읽을 수 있다.

if free version은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으며 print와 copy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부주 목사 특별 세력기도회 기거

전 뉴욕 총영사... 7월 9~12일 귀를 졸업한 뒤 도미해 조지타운대 대학원에서 국제 정치학을 전공했다.

그 뒤 다시 못한 바 있어 신학에 심취해 팻북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바 있다.

문부주 목사는 그동안 외교부 등에서 1차관과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 외교부 이태극관, 주뉴질랜드 대사, 뉴욕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목회자로서는 은누리 교회 부목사를 거쳐 현재 일본 오사카 온누리교의 담임목사고 있다.

저서로는 '세백만 그리스도인', '실경의 맥을 잡아라' 등이 있다.***

과를 졸업한 뒤 도미해 조지타운대 대학원에서 국제 정치학을 전공했다.

그 뒤 다시 못한 바 있어 신학에 심취해 팻북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바 있다.

문부주 목사는 그동안 외교부 등에서 1차관과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 외교부 이태극관, 주뉴질랜드 대사, 뉴욕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목회자로서는 은누리 교회 부목사를 거쳐 현재 일본 오사카 온누리교의 담임목사고 있다.

저서로는 '세백만 그리스도인', '실경의 맥을 잡아라' 등이 있다.***



미주재단 이만택 회장 수상

미주재단 회장 이만택 박사(외대 52·사진 오른쪽)가 지난 7월 4~7일 남가주 Dana Point에서 열린 제20차 미주 한인사회에서 대상인 '최저장상'을 수상했다. 이만택 박사는 이날 이와 함께 Congress에서 수여하는 'Certificate of Congressional recognition'도 받았다.

'최저장상'은 미주 총조사회의 향상 발전을 위해 활동

과 봉사를 해 온 공로를, 'Certificate of Congressional recognition'은 최우경에 대한 공헌과 한인 동포사회에 대한 기여, 의학계 발전을 위한 지도력 등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만택 박사는 NJ Trenton Capital Health System과 Mercer Medical Center에서 30년간, NIH의 명예 Einstein 회장이면서 일했다.***

백운약 동문 오메라 '돈 쏘반나' 기워

필리델피아 힐 에틀러 극장과 영생 장로교회에서 오메라 공연

무엇은 여름 밤을 시원하게 식혀줄 감동적인 오메라 공연이 아닌 동포들에게 제공됐다.

'오메라 리베라'의 두 번째 정기 공연, 돈 쏘반나(Don Giovanni)가 백운약 동문 지회로 8월 18일과 25일 필리델피아의 메들리엔 힐 에틀러 극장과 영생

교회에서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처음 공연된 것이다.

'오메라 리베라'는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오메라 지회사건은 더글라스의 오메라에 대한 열정적 사랑을 이야기기 위한 시극이었다. 뎀틀을 순대의 교인이기도 했던 그의 제자 중에는 특히 한국인이 많았고 오메라 리베라에 대한 한국인 생각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공연에서 지회를 받은 지회와 백운약 동문은 모교 유래와 명문 커리큘를 졸업하고, 뎀틀 대 음에서 온 더글라스와 연을 맺었다.

백운약 동문은 오메라 델라웨어, 서울 필리델피아, 오메라 뉴저지, 샌프란시스코 오메라, 워싱턴주 페르시픽 캐나다 등에서 활동하며 유망한 젊은 지회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오메라 델라웨어에서 나비 부인으로 데뷔한 한인들과 미주주 사회에서 생애이념을 일으켰던 소프라노 장유나씨도 이번 공연에서 돈나 만나 역을 맡았다.

이번 오메라에 출연한 가수들은 AVA, 오메라 델라웨어, 키틀랜드, 레지나 오메라, 핑게스트 오메라, 부키오 오메라, 뎀틀 오메라, 사라소라 오메라, 그리고 1번 오메라 등에서 활동하는 역을 일당하는 음악가들로 알려져 있다.***

→오메라 '돈 쏘반나'의 공연에 출연하는 주연진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워싱턴주 동창회

김재훈 박사, 시니어 클럽서 강연회

알래스카 크루즈를 겸한 제2차 미주 평원 회의가 열리기 직인 지난 7월 7일 워싱턴주 동창회 (회장 윤석진 본리대 64) 'Senior Club' 회장 김인배 (수리대 59) 역서는 교양강좌

가 있었다. 이날의 초청 강사는 BOEING에서 Executive/Senior Technical Fellow Networked Systems Technology로 재직중인 김재훈 박사 (공대 72)로 강연 타이틀은 'How Wireless Technology change world?'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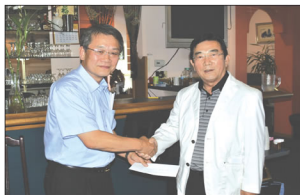
제2차 평원 회의의 참가를 위해 Seattle에 잠시 들었던 서운의 인경수 총동창회장을 비롯 한 동문들과 김재훈 박사 등 동창회장을 비롯한 미주 지역 동문들은 운 좋게도 이 교양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김재훈 박사는 '무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바꾸어 나갈 것인가' 라는 분야에 대해 '워싱턴주 동창회 최고 원로 장석익주(의대 43) 동문도 이날 무인과의 참석해 김재훈 박사의 강연을 열심히 경청했다.



↑워싱턴주 동창회 Senior Club주최 교양강좌 후 참가 동문들이 일관수 총동창회장과 김재훈 미주 동창회장을 중심으로 한 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김재훈 박사가 'How Wireless Technology change world?' 를 주제로 강연하기 위해 서두를 준비 중이다.

해 가장 첨단과 혁신적인 자료와 영상 이미지를 준비해 상세하게 설명해나가 참가 동문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김 박사는 "앞으로 기술이 날아 날출 수 있는 세상이 될



↑김재훈 미주 동창회장(오른쪽)은 워싱턴주 동창회를 위해 이날 윤석진 회장에게 감사패를 선사했다.

워싱턴주 'Senior Club' 은?

워싱턴주 동창회의 'Senior Club' 은 지난 2009년 1월 처음 조직됐다.

창립 주역은 최고 원로이신 장석익주(의대 43) 동문을 비롯 해 이희백(의대 55) 동문과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인배 수리대 59(사단) 동문이다.

누구든 '시니어' 동자의 'Golden Club' 과 비슷한 생활로 문화 교양·레저·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김인배 회장은 "현재 이 모임은 50여 명으로 70-80학번이 가장 많다" 고 말했다.

김인배 회장은 이어 "Senior Club의 창립 이래 지금까지 교양 강좌는 매월 1회 정도도 특별히 그때다 사회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부를 중 가장 시사성이 있는 분야를 골라서 40



여비를 실행해오고 있다" 고 강조했다. 강사진은 90% 이상이 동문들로 구성돼 있으며 나머지 10% 정도는 가장 정직한 학자들만을 초청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행동지도, 국선도와 생활건강, Mental and Religion, 종합건강의 의과 정, 영상으로 본 20세기, 김정일 정권의 계승문제, 한국문화의 세계, 클래식 음악, Well-Being and Retirement, 기억력과 노화현상, 도덕성, 컴퓨터 영상 처리, 남북전쟁,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 등 주제가 많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흔히 이곳 Seattle에 대해 '북의 해안가가 한국의 속초같은 곳' 으로 다수 평가절하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 전역에서 이만큼 깨끗하고 마치 고향처럼 아늑한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곳도 드물 것" 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날 김재훈 박사의 강연에 앞서 김인배 회장이 Senior Club 교양강좌의 성격과 Seattle의 지역 특색에 대해 참가 동문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이다.***<편집주간>

것" 이라면서 "그런 세상이 어떻게 적용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Wireless가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은 3가지로 분류해 각각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나갔다. 현재의 Commercial World는 Cellular Phone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만 그치지 않을 때는 앞으로는 Digital Life에 의한 혁신의 삶이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Smart Phone에서

Smart TV도 그것이며 이것도 또 따라 Tablet PC 경쟁시대로 들어간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는 모든 항공기가 알루미늄을 벗고 탄소 섬유시대로 갈아입혀 무게를 비롯한 무게 설명해나갔다. 현재의 항공기나 자동차 등도 모두 무선시대 자동 조종 시스템의 무선시대 접어든다는 것.

"현재 Boeing사도 이러한 시대를 대비한 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김 박사는 말했다.*** <편집주간>



뉴욕 동창회

제34대 김창수 회장 취임, 이사회

뉴욕 동창회 회장(약대 68·사진) 등문을 제34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지난 7월 1일 취임식을 가졌다.

뉴욕 동창회는 ▶수석 부회장 박상현(송대 73) ▶부회장 윤병하(농대 84) ▶이사장 박신실(공대 65) ▶이사장 김영철(약대 76) ▶감사 한경수(문리대 61)·김문경(약대 65) 등문을 각각 선임하였다.

이어 7월 21일 오후 파킨슨 이사회 상에서 제34대 동창회 집행부 제1차 임원회의 겸 저녁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창수 선임 회장, 이준형 골든 클럽 회장 등 11명의 임원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폐회하고 시한한 날씨에, 잘 정돈된 넓은 뒤뜰에서 육 이사회장 부부의 경성 어딘서와 관내로 모두 회기예배하였다. 시간 가는 것이 아까울 만큼 즐거운 모임이 되었다.

포스팅한 저녁 만찬과 더불어 이 김

창수 회장의 새로 선출된 임원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소개시간이 끝난 후, 박 이사장은 미리 준비한 스키슬에 맞추어 넓은 마당에 만들어 놓은 골든 연승장에서 편을 돌리며 놀이 시간을 보냈다.

점심 개입 후, 2층에 마련된 음악 감상실에서 작은 미드나잇 음악회가 열렸다. 즉 이사회장은 연봉가를 능가하는 수준의 음악기기로 구성된 퀸트레트인 밴드 유닛과 각종 악기, 가요와 클래식의 총 망라한 CD, DVD 컬렉션 등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상문을 내린 회기예배한 가락요 노래 경연도 즐기며 늦은 저녁까지 참석한 모든 임원들은 즐겁고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앞으로 1년간 뉴욕 지부 동창회 업무를 담당할 임원진과 단과대 동창회장 및 이사회의 상임직을 정했 이사회는 8월 9일 정경, 공경제 사교, 적극적인 사



↑오연천 총장이 김언 후 이준형 골든클럽 회장(오른쪽) 등 동문들과 건배하고 있다.

일에 앞서 뉴욕 동창회는 지난 6월 8일 모교 오연천 총장 강연회 '뉴욕지역 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대 미주계단 이후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의 뉴욕 강연회'는 6월 8일 오후 뉴저지 시 팜뷰 연회장에서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오연천 총장은 이날 참석자 동문들에게 "오늘의 이 시간이 잊기까지 동문들께서 메시아 정성, 공경제 사교, 적극적인 사

교로 일관해 오신 덕분에 오늘 날의 서울대가 만들어졌다" 라고 말하고, "다국적 불교의 노력과 역경을 극복하시며 서울대인으로서의 우수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계시는 동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연천 총장은 "서울대가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로 거듭나며 '자유'와 '해방'을 핵심 정신으로 하는 새 시대를 통해 세계 속의 서울대로 발전해 나가자" 한

말을 했다.

오 총장은 이어 "미주 동문들이 자랑스럽고 서울대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한미 양국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특별히 '학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 총장은 이준형 골든 클럽 회장(동창회 부회장), 조경철 등문, 에드워드 강 전 동창회장에 동창회에게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원형 총부>



Golden Club, Minnewaska Lake 산행

뉴욕 동창회 'Golden Club'(회장 이준형·공대 48) 회원들이 지난 7월 24일 Minnewaska Lake, Gertrudes Nose에서 산행을 즐겼다.

바로 전날 비와 새벽에 많은 스나기가 퍼졌고 그 후, 늦가을같은 청명한 날씨에 시원한

마담까지 산길을 붙여주는 쾌적한 하루였다.

작년에 산행 동산장비를 구입하고 산행에 참여하였다.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고 소극적이었던 회원이 이준형 회장 권유에 힘입어 모이던 참석하여 하이킹 정규 멤버로 다시

동참하게 되었다.

이런에도 A 그룹은 충성을 원장회 동행해 호반 원바비산 해안에서 하리, 반절 스트리트 풀린하고, B2같은 Gertrudes Nose 산행을 하며 Minnewaska의 절경을 만끽했다. 이날 참가자는 손경택/황정희 이준형 이대영·이준형·최주진·한태진(2)·홍우만·송성준·민병렬 등문. <김원형 총부>

신임 김창수 회장은



CPA(공인회계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이후 1987년까지 뉴욕주 재무장 세무 감사관으로 일했고, 지난 25년간 뉴욕시 맨해튼에서 공인회계 사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김 회장은 뉴욕 동창회에서 지난 30여년간 재무 감사와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 뉴욕 동창회 부회장을 지냈다.

미주 동창회에서는 2007-2009년 감사와 미주 동창회 부회장 임원을 겸직 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미주 동창회로는 실무회로서 많은 글을 쓰며 봉사해 오고 있다.

김 회장을 잘 아는 주위 동문들은 한결같이 '아주 밝고 적극적인 성품으로 동창회 발전에 기여가 아주 크다'고 평하고 있다.***



시카고 동창회

여름 야유회, 세종문화회 이사회

시카고 동창회가 지난 7월 7일 13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Basse Woods Grove에서 정기 여름 야유회를 가졌다. <사진> 임현재(의대 59) 촬영>
또한 시카고 세종문화회(회장 주영혜(중리이나 주), 사무총장 박종희(무시 박-의대 60)), 이사장 김요범(상대 69)가 7월 23일 Tox 레스토랑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경과 보고회를 가졌다. 시카고 세종문화회는 세종 음악경영연대, 세종 작문경영연대, 세종 국제 작곡경영연대와 시조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미국 전역의 주류 문화계에 소개하고 있는 문화 단체다. 사진 왼쪽부터 Mark Chee (Fund Raising Committee Co-chair), Esther Yang, You Sim Kim (Vice President), Juliana Qyu (President), Sook Park Choh (Treasurer & Fundraising Committee Co-chair), Fay Kang (Secretary), Hyunsong Kim, Keith Boerssox, David Whitney, Lucy Park (Executive Director), Ido Kim (Chairman), 등문.***



오레곤 동창회

Rooster Rock State Park서 야유회

오레곤 동창회(회장 이석진-공대 60)가 지난 8월 11일 콜럼비아 강가의 Rooster Rock State Park, Steller A.에서 여름 피크닉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의 동문과 그 가족들이 참석해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맑고 화창한 날씨 덕분에 푸르른 오레곤의 여름을 만끽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사진> 이은실(문리 53)

원로 동문부터 이세훈(공학 00) 동문이 이끄는 다양한 연령대의 동문이 참석하였다. 동문들은 푸짐한 식사와 환담, 그리고 가족 이어 달리기, 족구, 퀴즈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동문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이였다. 이날 수고로움 일원권은 양지수(회계)-박형문(농부)-김오현(사기) 등이다.*** <해잡 이석찬>



↑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날 여름 야유회에 참가한 동문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동문들의 활발 축구시합 장면. 동문 가족들이 즐긴 이어 달리기> 결과를 하고 있다.



남가주 동창회

할리웃 불서 한여름밤 추억만들기

남가주 동창회가 지난 7월 28일 가재대 동창회 주관으로 오후 5시경부터 25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를 개회했다.

'Hollywood Bowl 가족의 밤' 행사는 개회했다. 남가주 동창회 김성수(사회과대 84) 총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김은종(상대 59) 미주 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 행사가 남가주의 가장 전통적인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아 흐뭇하다"고 말했다. 김은종 회장은 인사말과 함께 남가주 가재대 동창회 안혜정(가재대 77) 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남가주 동창회 사치원(공대 60) 회장은 "동문들이여, 오늘 날 배움껏 먹고, 가장 신명나게 공연을 즐겨봐라"라며 큰다짐이 없이 최선을(?) 한마디 인사로 대신했다. 행사를 준비한 안혜정 가재대 동창회장은 "이 행사가 동문

간, 그리고 가족간 사랑을 나누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해 꽤 큰 보람을 느낀다"고 회답했다. 동문과 가족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7시 반까지 아와의 식사를 마친 다음 Hollywood Bowl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을 관람하러 가기 전도 동문들이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입장권만 받으면 없느냐"고 웃고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총무국장은 "방범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장이 위치한 원쪽산 농신을 타는 산행을 해서 팬스를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농신을 타고 넘어 가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 공연이 거의 끝날 때 뛰어다녀 도착할 것 같아 유감이에요"라고 응수해 웃음꽃을 피웠다. 'Hollywood Bowl 가족의 밤' 행사는 남가주의 동창회 행사 중 가장 많은 단골손님을 가진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김은종 미주 동창회장(왼쪽)이 안혜정 가재대 동창회장(77·가재대 58)에게 격려금을 제시하고 있다. 오른쪽은 열인숙(78) 동문.



↑ Hollywood Bowl 가족의 밤' 행사가 참가한 남가주 동문과 가족들이 식사를 마친 다음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 11오후 7시 반경부터 Hollywood Bowl에 입장하기 시작해 8시경에는 거의 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공연장이 만원을 이루고 있다.

한편 경명한 동문은 다음 해에도 꼭 가게 돼 해마다 참석하는 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에는 무려 310명이 참석해 준비해간 음식이 모자라는 증상을 연출하기도 했다.

↓ 김은종 미주 동창회장과 부인 김(윤)혜선(왼쪽) 여사가 박종수(수리대 58) 등문 부부와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오후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유쾌한 Hollywood Bowl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LA의 명물 중 한 곳인 이곳의 야의 음악당 'Hollywood Bowl'에서는 해마다 7월 4일

특별 기념일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매일 저녁 공연이 벌어지는 것이다. 공연은 제트무브 Classic까지 온갖 음악의 콘서트는 물론 뮤지컬과 코미디를 비롯한 각종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 공연장은 Hollywood 깊은 산 속에 Bowl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이 공연장의 면적은 300달리 짜리이며 면적 차이는 5달리 짜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널따란 나뭇 자락에서 느끼는 광명 광택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이 멋진 게 증명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남가주 특유의 기호가 좋은 7월의 달빛과 별빛이 쏟아지는 밤 하늘에서 한여름 밤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해마다 한 차례씩 한여름 밤의 낭만적인 밤을 감미로운 음악과 공연을 즐기며 동문간, 또 가족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다. **<<원집주>>

My Journey to America < 권준희 교수

좌절하지 않는 삶의 열매 <2>



권준희(식품영양학과 87)

한국어 부모님께서는 이 일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귀국 명분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 **불과도 후회할 필요** - 이이오와는 장로교 안목교회 필리피로 가는 편지라도 보내 드시었으므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는 않으니 어떻게 할지라도 이 일을 성공하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돌아갔더라면 그야말로 내게 남은 것은 후회와 절망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 후로 자주 환란과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다. 말년에는 약을 꾸준히 먹으며, 평소보다 더 많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일이 나타날 때는 소스라치게 놀랐다가 잊었던 사려져 아무 것도 남겨 먹을 수가 없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은 여성보살처럼 보낸 제니퍼와 카롤리 현정입니다. 물론, 그리고 가끔 내일 와서 내가 갈 것인지 물어봐 주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나를 데리고 산책도 나가 주 제임스입니다.

▶ **다기오는 제임스 낫슨** 적지 않아서 일을 위해 애쓰는 제임스가 고맙고 내 마음을 결정 지을 상대가 서서히 나한테 리얼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임스는 나에게 한국의 부모님께 이 일을 알려라고 충고했다. "그럴 수 없다",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그는 "부모님께서는 나를 잘 권하지 않" 버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상심하시겠느냐" 고 말했다.

하긴, 그 일을 당한 후유 전화를 했더니 감정에 촉박히 울기나 했을 나였다. 이는 정도와 시간이 지나 절리가 오히려 부모님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부모님에게 말을 걸어 먼저 안경시계 드린 후 밀림해 그날 밤의 이야기를 했다. 기를 이제는 편찮다고 말해서 드렸으나 전화를 드린 지 3일 후, 어머니께서는 글썽하니 찾아 오셨다. 그것이 어머니의 첫번째 미국 방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는 "당장 짐을 싸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아뢰셨다. 딸의 신세를 망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학위 따위는 중요하지 아니었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이미 한국에서는 이상 취급도 없는데, 무슨 짓 하나 할 일이 없는데, 무슨 죽기보다 싫다고 했다.

결국 내게 설득 당하신 어머니는 벨기에에서 돌아오면 한국에서 비행기로 하라고, 공항에서 나는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한없이 울었다.

▶ **두 번 떠나는** - 그렇게 첫 어

"믿었던 선배가 시험 도중 내 답안을 자신의 디스크에 복사해 교수에게 제출, 똑같은 답안의 커닝 혐의로 교수회의 끝에 간신히 퇴학 면해, 그러고도 선배는 적반하장"

름을 지내고, 성실하게 몰론 나무처럼 계기를 꾸꾸며 가을 학기에 입했다. 물론 그 학기 때문에 벌점에 불려가고 하곤 All University Judiciary도 열리자 바빠져 지냈던 것이야 배울의 정은 막을 수는 없었다.

그 학생은 결국 퇴학을 당했고 법정 출두 첫날 아침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뉴욕에서 뒤를 쫓았었다. 이것이 행방이 묘연했다. 나는 이것만 알면 편이었다.

가을 학기동안, 나는 컴퓨터, 음악 과목을 들었다. 그 과목의 중간고사시험이 끝이 아니라 컴퓨터 할 때 들어가 있는 나의 열 지라는데는 늘 친하게 지냈던 한국 학생이 없게 되었다.

그 학생은 유학에 대한 중박을 내며 나오는 것 - 불운의 사건을 당한 후 1990년 8월 15일 어머니께서는 부러워하며 도시에서 "모두 포기하게 할 수가" 고 하였다.

부모 장을 보는 일, 같은 시사 초대까지 참으로 내게 친척과 대해 주던 선배였다. 우리는 각자 이름이 쓰여진 플로이드 디스크를 받아 시험을 치기 시작했다.

한 시간을 지났을까, 갑자기 그 선배는 내게 한국말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너무나 당황했다. 시험 도중 영어도 아닌 한국말로 속대며 말도 있었으면 누가 커닝을 한다고 의심하지 않았가. 하지만 너무나 친한 사람,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기에 딱 잘라 거절하지 못했다.

▶ **나를 속인 선배** - 그 사람은 자기 답과 내 답이 많이 틀린 것 같더니, 내 답이 정답일 것이라고 알려주니 나는 정답을 의심하며 빌려달라고 사정했다. 나는 교수님의 눈치를 보며 그 부활을 무시하고 거절하려 하였으나 계속 한국말로 말을 걸었으니 선배에게 영접했다 디스크를 주고 받았다. 그 선배는 내 답을 그대로 자신의 디스크에 카피하여 교수님께 먼저 제출해 버렸다.

너무나 기가 막았다. 자꾸어깨 이름이 적힌 디스크를 주었다면 디스크마다 교수가 개인 정보 정보를 넣을 수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면 바꾸어 제출하면 우리가 커닝을 한 것이 틀림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닌가. 첫 번째 한국에서 구면해서 내가 일을 막을 고 다시 한번 나의 뜻을 굳히려고 다시 울음 흘릴 걸 심

지 4개월 뒤의 일이었다. ▶ **교수회의서 겨우** - 학과 교수회의도 모두 이 일을 아시게 되었고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교수회의를 열었다. 일 마는 논의가 있는 후 놀랐지만 나는 교수님의 용서받을 만할 줄 알았다. 그때도 나는 교수님은 나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셨다.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퇴학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 **선배 역시** - 한을 들었던 나더 교수님께 고지할 만할 줄 알았다. 그 이후로는 나를 잘 믿게도 하였다. 그는 나의 잘못을 믿고 보듬어 주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때라도 무엇이든 내가 다니던 교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든, 나를 피하는 사람들이 몇몇 생기 시작했다.

▶ **한번은** - 내가 사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한회 보이는 곳에서 교문까지 몇 거 떨어져 배부러 먹고 싶은 마음이 보였었다. 내 주변에는 사는 10여 명의 교동이 있는 숙식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참으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1생각하기도 싫은 사건을 겪은 후에도 내게는 또다른 시련이 닥쳐 왔다. 불과도 의외로 유학생들 중에도 캠퍼스에 갔을 것이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가을 학기동안, 나는 컴퓨터, 음악 과목을 들었다. 그 과목의 중간고사시험이 끝이 아니라 컴퓨터 할 때 들어가 있는 나의 열 지라는데는 늘 친하게 지냈던 한국 학생이 없게 되었다.

▶ **회로** - 회로였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친정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대충 속해는 신을 보낼 때, 나는 그 때 초대받지 못한 채 내 방에 가서 구경만 해야 했다. 그들은 내 소개 없이 큰 소리를 내며 내 갔었다.

<계속>

22/20 2012년 6월

고국 동문동정

수상

- ▲ 盧武鉉(경제45 - 51 前프르마 통기이사)·지남 6월 13일 코트 & 왕립 디자인 기념비에서 무 공주 유치를 통해 국가상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 수상.
- ▲ 李相福(수외48 - 56 前정남중 교장)·최근 한국교육신문 제60회 교육주간 사건공모전에서 은 수상 수상.
- ▲ 李在(남원455 - 60 세아운동중앙회 장)·지남 5월 29일 캄보디아 국가발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건국포장 수상.

▲ 孫炳희(경제60 - 64 KBS 이사장)·지남 6월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국 힐트 국제경영대학원에서 수여하는 '2012 힐트 동문상' 수상.

▲ 鄭學源(합복61 - 65 상지대 총장)·최근 '실 크로드 인스타드' 문명의 충돌과 비전의 중요도에 헌신한 공로로 '2012 평화대상' 수상.

▲ 李班(국문61 - 68 한국약학연구원 명예교수)·지남 6월 9일 일석학술제으로부터 제10회 일석국악학상 수상.

▲ 李正(경제64 - 70 호산종합대학 원장)·지남 7월 12일 제6회 환경기원연문문화상(경제경영도시부문) 대상 수상.

▲ 郭炳燾(교목66 - 70 前한국국제개발장 관리인)·지남 6월 13일 연세대학교 28년 판태평양교육회으로부터 피터 브라운스 교수상 수상.

▲ 韓惠孫(경제67 - 71 한국무역협회)·지남 6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쇼사이드' 연례 대회에서 '2012 벨루프스트' 수상.

▲ 金仁(정목69 - 73 KBS 작가)·본조(은선회)·지남 11월 19일 미국 국제TV와 방송기구(IATAS)가 수여하는 '국제예미상' 공로상 수상.

▲ 李元(전차명동74 - 74 타라피드스 대표)·지남 6월 27일 경기 지역 중소기업 유공자 시상식에 교육부총리표창 수상.

▲ 任志暉(북47 - 74 모교 동리천문학부 석좌교수)·지남 6월 20일

쓰임이 수여하는 제1회 '올해의 신화학자' 캐슬릿' 수상자에 선정.

▲ 洪國龍(계림학76 - 79 모교 제1회 명예무교수)·지남 6월 14일 지체장애인 재활사업 콘퍼런스에서 대대적인 지체 장애인교육사업에 대한 공로로 지체 장애인교육사업 우수상 수상.

▲ 蘇敏敦(금우학77 - 81 상수원 이사장)·지남 7월 12일 제3회 정경인기문헌문화상(과학기술부문) 대상 수상.

▲ 鄭錫誦(원학78 - 85 사우스 판양구장)·지남 6월 28일 전국기초단체장 대회 이스트-유니버서티 컨퍼런스에서 최우수 수상.

▲ 姜宇燦(의학80 - 93 모교 소아청소년과 교수)·지남 6월 19일 대한혈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1회 우수 연구자 대상 수상.

▲ 李承根(SGS 11기 총괄)·지남 6월 30일 한국지마온스그룹 회장직을 인수한 '한국사자대상' 수상.

인사

▲ 鄭善賢(합복61 - 65 前외교관)·지남 7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9월 일석학술제로부터 제10회 일석국악학상 수상.

▲ 李正(경제64 - 70 호산종합대학 원장)·지남 7월 12일 제6회 환경기원연문문화상(경제경영도시부문) 대상 수상.

▲ 郭炳燾(교목66 - 70 前한국국제개발장 관리인)·지남 6월 13일 연세대학교 28년 판태평양교육회로부터 피터 브라운스 교수상 수상.

▲ 韓惠孫(경제67 - 71 한국무역협회)·지남 6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쇼사이드' 연례 대회에서 '2012 벨루프스트' 수상.

▲ 金仁(정목69 - 73 KBS 작가)·본조(은선회)·지남 11월 19일 미국 국제TV와 방송기구(IATAS)가 수여하는 '국제예미상' 공로상 수상.

▲ 李元(전차명동74 - 74 타라피드스 대표)·지남 6월 27일 경기 지역 중소기업 유공자 시상식에 교육부총리표창 수상.

▲ 任志暉(북47 - 74 모교 동리천문학부 석좌교수)·지남 6월 20일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 李南(형제51 - 55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지남 6월 8-11일 연세대학교 10회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국제학술대회를 '현대국가의 행정 및 행정법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선편.

▲ 洪在(합복77 - 81 신관공대 교수)·지남 6월 28일 일기 1-1년의 한국공법학회 제32회 회장에 취임.

▲ 李祖輝(화학공학82 - 86 KAIST 특목교수)·지남 13일 세계 제1회 응용 분야 학술회제 '이노벨스 2012' 펠로우 미터얼디(AMF) 편집자위원에 선임.

▲ 朴濼一(대학원84 - 86 한국해양대 총장)·지남 6월 19일 한국해양학회 기념식에서 이사장직을 맡음.

▲ 許文明(가정관리86 - 90 동아일보 국제 부 차장)·본조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2012년 5월 20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취임.

▲ 文煥然(형제65 - 61 SBS 미디어 그룹 명예회장)·지남 6월 28일 19회 서울대학교 명예회장이 임명되었다.

▲ 鄭錫誦(원학78 - 85 사우스 판양구장)·지남 6월 28일 전국기초단체장 대회 이스트-유니버서티 컨퍼런스에서 최우수 수상.

▲ 姜宇燦(의학80 - 93 모교 소아청소년과 교수)·지남 6월 19일 대한혈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1회 우수 연구자 대상 수상.

▲ 李承根(SGS 11기 총괄)·지남 6월 30일 한국지마온스그룹 회장직을 인수한 '한국사자대상' 수상.

▲ 鄭善賢(합복61 - 65 前외교관)·지남 7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9월 일석학술제로부터 제10회 일석국악학상 수상.

▲ 李正(경제64 - 70 호산종합대학 원장)·지남 7월 12일 제6회 환경기원연문문화상(경제경영도시부문) 대상 수상.

▲ 郭炳燾(교목66 - 70 前한국국제개발장 관리인)·지남 6월 13일 연세대학교 28년 판태평양교육회로부터 피터 브라운스 교수상 수상.

▲ 韓惠孫(경제67 - 71 한국무역협회)·지남 6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쇼사이드' 연례 대회에서 '2012 벨루프스트' 수상.

▲ 金仁(정목69 - 73 KBS 작가)·본조(은선회)·지남 11월 19일 미국 국제TV와 방송기구(IATAS)가 수여하는 '국제예미상' 공로상 수상.

▲ 李元(전차명동74 - 74 타라피드스 대표)·지남 6월 27일 경기 지역 중소기업 유공자 시상식에 교육부총리표창 수상.

▲ 任志暉(북47 - 74 모교 동리천문학부 석좌교수)·지남 6월 20일

행사

▲ 李南(형제51 - 55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지남 6월 8-11일 연세대학교 10회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국제학술대회를 '현대국가의 행정 및 행정법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선편.

▲ 洪在(합복77 - 81 신관공대 교수)·지남 6월 28일 일기 1-1년의 한국공법학회 제32회 회장에 취임.

▲ 李祖輝(화학공학82 - 86 KAIST 특목교수)·지남 13일 세계 제1회 응용 분야 학술회제 '이노벨스 2012' 펠로우 미터얼디(AMF) 편집자위원에 선임.

▲ 朴濼一(대학원84 - 86 한국해양대 총장)·지남 6월 19일 한국해양학회 기념식에서 이사장직을 맡음.

▲ 許文明(가정관리86 - 90 동아일보 국제 부 차장)·본조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2012년 5월 20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취임.

▲ 文煥然(형제65 - 61 SBS 미디어 그룹 명예회장)·지남 6월 28일 19회 서울대학교 명예회장이 임명되었다.

▲ 鄭錫誦(원학78 - 85 사우스 판양구장)·지남 6월 28일 전국기초단체장 대회 이스트-유니버서티 컨퍼런스에서 최우수 수상.

▲ 姜宇燦(의학80 - 93 모교 소아청소년과 교수)·지남 6월 19일 대한혈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1회 우수 연구자 대상 수상.

▲ 金南(형제51 - 55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지남 6월 8-11일 연세대학교 10회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국제학술대회를 '현대국가의 행정 및 행정법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선편.

▲ 洪在(합복77 - 81 신관공대 교수)·지남 6월 28일 일기 1-1년의 한국공법학회 제32회 회장에 취임.

▲ 李祖輝(화학공학82 - 86 KAIST 특목교수)·지남 13일 세계 제1회 응용 분야 학술회제 '이노벨스 2012' 펠로우 미터얼디(AMF) 편집자위원에 선임.

▲ 朴濼一(대학원84 - 86 한국해양대 총장)·지남 6월 19일 한국해양학회 기념식에서 이사장직을 맡음.

▲ 許文明(가정관리86 - 90 동아일보 국제 부 차장)·본조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2012년 5월 20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취임.

▲ 文煥然(형제65 - 61 SBS 미디어 그룹 명예회장)·지남 6월 28일 19회 서울대학교 명예회장이 임명되었다.

▲ 鄭錫誦(원학78 - 85 사우스 판양구장)·지남 6월 28일 전국기초단체장 대회 이스트-유니버서티 컨퍼런스에서 최우수 수상.

▲ 姜宇燦(의학80 - 93 모교 소아청소년과 교수)·지남 6월 19일 대한혈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1회 우수 연구자 대상 수상.

▲ 鄭善賢(합복61 - 65 前외교관)·지남 7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9월 일석학술제로부터 제10회 일석국악학상 수상.

▲ 李正(경제64 - 70 호산종합대학 원장)·지남 7월 12일 제6회 환경기원연문문화상(경제경영도시부문) 대상 수상.

▲ 郭炳燾(교목66 - 70 前한국국제개발장 관리인)·지남 6월 13일 연세대학교 28년 판태평양교육회로부터 피터 브라운스 교수상 수상.

▲ 韓惠孫(경제67 - 71 한국무역협회)·지남 6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쇼사이드' 연례 대회에서 '2012 벨루프스트' 수상.

▲ 金仁(정목69 - 73 KBS 작가)·본조(은선회)·지남 11월 19일 미국 국제TV와 방송기구(IATAS)가 수여하는 '국제예미상' 공로상 수상.

▲ 李元(전차명동74 - 74 타라피드스 대표)·지남 6월 27일 경기 지역 중소기업 유공자 시상식에 교육부총리표창 수상.

▲ 任志暉(북47 - 74 모교 동리천문학부 석좌교수)·지남 6월 20일

▲ 李南(형제51 - 55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지남 6월 8-11일 연세대학교 10회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국제학술대회를 '현대국가의 행정 및 행정법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선편.

▲ 洪在(합복77 - 81 신관공대 교수)·지남 6월 28일 일기 1-1년의 한국공법학회 제32회 회장에 취임.

▲ 李祖輝(화학공학82 - 86 KAIST 특목교수)·지남 13일 세계 제1회 응용 분야 학술회제 '이노벨스 2012' 펠로우 미터얼디(AMF) 편집자위원에 선임.

▲ 朴濼一(대학원84 - 86 한국해양대 총장)·지남 6월 19일 한국해양학회 기념식에서 이사장직을 맡음.

▲ 許文明(가정관리86 - 90 동아일보 국제 부 차장)·본조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2012년 5월 20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취임.

▲ 文煥然(형제65 - 61 SBS 미디어 그룹 명예회장)·지남 6월 28일 19회 서울대학교 명예회장이 임명되었다.

▲ 鄭錫誦(원학78 - 85 사우스 판양구장)·지남 6월 28일 전국기초단체장 대회 이스트-유니버서티 컨퍼런스에서 최우수 수상.

▲ 姜宇燦(의학80 - 93 모교 소아청소년과 교수)·지남 6월 19일 대한혈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1회 우수 연구자 대상 수상.

▲ 金南(형제51 - 55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지남 6월 8-11일 연세대학교 10회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국제학술대회를 '현대국가의 행정 및 행정법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선편.

▲ 洪在(합복77 - 81 신관공대 교수)·지남 6월 28일 일기 1-1년의 한국공법학회 제32회 회장에 취임.

▲ 李祖輝(화학공학82 - 86 KAIST 특목교수)·지남 13일 세계 제1회 응용 분야 학술회제 '이노벨스 2012' 펠로우 미터얼디(AMF) 편집자위원에 선임.

▲ 朴濼一(대학원84 - 86 한국해양대 총장)·지남 6월 19일 한국해양학회 기념식에서 이사장직을 맡음.

▲ 許文明(가정관리86 - 90 동아일보 국제 부 차장)·본조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2012년 5월 20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취임.

▲ 文煥然(형제65 - 61 SBS 미디어 그룹 명예회장)·지남 6월 28일 19회 서울대학교 명예회장이 임명되었다.

▲ 鄭錫誦(원학78 - 85 사우스 판양구장)·지남 6월 28일 전국기초단체장 대회 이스트-유니버서티 컨퍼런스에서 최우수 수상.

▲ 姜宇燦(의학80 - 93 모교 소아청소년과 교수)·지남 6월 19일 대한혈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1회 우수 연구자 대상 수상.

▲ 鄭善賢(합복61 - 65 前외교관)·지남 7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9월 일석학술제로부터 제10회 일석국악학상 수상.

▲ 李正(경제64 - 70 호산종합대학 원장)·지남 7월 12일 제6회 환경기원연문문화상(경제경영도시부문) 대상 수상.

▲ 郭炳燾(교목66 - 70 前한국국제개발장 관리인)·지남 6월 13일 연세대학교 28년 판태평양교육회로부터 피터 브라운스 교수상 수상.

▲ 韓惠孫(경제67 - 71 한국무역협회)·지남 6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쇼사이드' 연례 대회에서 '2012 벨루프스트' 수상.

▲ 金仁(정목69 - 73 KBS 작가)·본조(은선회)·지남 11월 19일 미국 국제TV와 방송기구(IATAS)가 수여하는 '국제예미상' 공로상 수상.

▲ 李元(전차명동74 - 74 타라피드스 대표)·지남 6월 27일 경기 지역 중소기업 유공자 시상식에 교육부총리표창 수상.

▲ 任志暉(북47 - 74 모교 동리천문학부 석좌교수)·지남 6월 20일

▲ 李南(형제51 - 55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지남 6월 8-11일 연세대학교 10회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국제학술대회를 '현대국가의 행정 및 행정법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선편.

▲ 洪在(합복77 - 81 신관공대 교수)·지남 6월 28일 일기 1-1년의 한국공법학회 제32회 회장에 취임.

▲ 李祖輝(화학공학82 - 86 KAIST 특목교수)·지남 13일 세계 제1회 응용 분야 학술회제 '이노벨스 2012' 펠로우 미터얼디(AMF) 편집자위원에 선임.

▲ 朴濼一(대학원84 - 86 한국해양대 총장)·지남 6월 19일 한국해양학회 기념식에서 이사장직을 맡음.

▲ 許文明(가정관리86 - 90 동아일보 국제 부 차장)·본조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2012년 5월 20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취임.

▲ 文煥然(형제65 - 61 SBS 미디어 그룹 명예회장)·지남 6월 28일 19회 서울대학교 명예회장이 임명되었다.

▲ 鄭錫誦(원학78 - 85 사우스 판양구장)·지남 6월 28일 전국기초단체장 대회 이스트-유니버서티 컨퍼런스에서 최우수 수상.

▲ 姜宇燦(의학80 - 93 모교 소아청소년과 교수)·지남 6월 19일 대한혈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1회 우수 연구자 대상 수상.

삼가 명복을 빕니다

▲ 趙久(의학44-50 前대법원장)·지남 5월 25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유서하신 공로로 제10회 일석국악학상 수상.

▲ 許錫(국어교육52출)·지남 5월 25일 연세대학교에서 유서하신 공로로 제10회 일석국악학상 수상.

▲ 吳炳燾(유리46-53 前전년대총장)·지남 5월 25일 연세대학교에서 유서하신 공로로 제10회 일석국악학상 수상.

▲ 李煥(경제48)·지남 5월 25일 연세대학교에서 유서하신 공로로 제10회 일석국악학상 수상.

▲ 李煥(경제48)·지남 5월 25일 연세대학교에서 유서하신 공로로 제10회 일석국악학상 수상.

▲ 李煥(경제48)·지남 5월 25일 연세대학교에서 유서하신 공로로 제10회 일석국악학상 수상.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818) 225-8411로

AZ 아리조나

Tempe Korean Methodist Church
김찬원(총대 79) 480-229-8826
1265 S. Solomon Dr. Mesa AZ 85204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HNK Teck,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효동(총대 58) (213)423-9929
7518 1/2, Foothill Bl LA. CA 91042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현(총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Santa Ana CA 92705

순학식 건축사무소
순학식(총대 81) (310) 394-0705
1424 4th St., #703 Santa Monica CA 90401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총대 59) (818) 990-5090
3126-9c. Scotts View Orange CA 92669

JND Engineering
박진득(총대 67) (714) 213-8157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달호(총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Sierra Padre Mill Co.(건축자재 생산)
이원찬(문리대 61) 760-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총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총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

Kim & Kang CPA's
(김경우 강정택 공인회계사)
김경우(총대 69) (213) 616-1390
345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Kim & Hwang CPA
김원철(총대 70) (213) 383-666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총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A. CA 90010

최승규 공인회계사
최승규(총대 62) (213) 381-0761
3650 Wilshire Blvd. #1010 LA. CA 90010

신대성 공인회계사
* 신대성(총대 8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ithersburg CA 90248

강효석 회계사무소
강효석(총대 81) (714) 530-3630
12512 Brookhollow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9-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Kim & Youn CPA
강규정(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A. CA 90010
왕광민 공인회계사
* 왕광민(법대 58)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A.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총대 76) (310) 325-0400
2740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Kim & Youn A.Prof.Corp
왕홍원(사대 81) (213) 427-9555
3660 Wilshire Blvd. #500 LA. CA 90010

이흥철 공인회계사
이흥철(경양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8

이광현 공인회계사
이광현(문리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1414 LA. CA 90010

장준 공인회계사
장준(인문대 76)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총대 76) (213) 252-5900
345 Wilshire Blvd. #1006 LA.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총대 65) (213) 739-5700
3440 Wilshire Blvd. #607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흥준(총대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A.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총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A.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총대 76) 213-252-5900
345 Wilshire Blvd. #1006 LA.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 South Tower #1310 LA. CA 90010

Kwang Hee Nam CPA
남광희(인문) 213-487-1666
3700 Wilshire Blvd #399 LA. CA 90010

Jung Mo Park & Co
박정모(문리대 66) 213-383-1390
3255 Wilshire Bl.#1700 LA.CA.90010

김광수 공인회계사
김광수(문리대 58) 562-644-3065
12125 Julius Ave. Downey CA. 90242

Koowon Kwun CPA & Assoc.
권국원(총대 69) 213-480-0520
869 S.Irlo St. LA. CA. 90005

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66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경양대 74) 213-39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재정업

First Standard Bank
임병희(공대 83), 최영구(총대 61)
James Hong(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Bank of America Home Loans
David H. Lee, CPA Mortgage
Loan Officer 이흥희(공대 82)
1 Park Plaza Ste 250 Irvine CA 92614

리테일러

한상재인(리테일러/상패)
하기환(총대 68)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유통/상패)
(626) 400-7074 1613 Chetoes Road #119 San
Marino CA 91088

S R Window, LLC. 유영 (대학원 74)
323-228-1700 901 E. 31st St LA. CA 90011

Fashion World 박희순(총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A-8
6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경원(문리대 71)
(310)879-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김철성(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테일러/보여양

세계보서
김광철(총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6B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업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형철(총대 65) (714) 724-2580
2800 Seltzer Dr. #111 Tustin, CA 92782
greenzone@yahoo.com

유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총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rk St. Anaheim CA 92801

S.Y 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영표(법대 58) 562-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총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A. CA 90029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총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203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
왕원찬(문리대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020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민(총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상원(공대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Cir. Rancho
Domiguez, CA 92220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공대 64) (213) 38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0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기밀/도움/서비스

LinkTV Media.
김원철(총대 65) 818-768-5494
P.O.Box 1369 Sun Valley, CA 91352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부동산/승계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강성(총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James Lee 부동산
이홍도(총대 69) (714) 635-4011
1269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총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규(총대 65) (562) 904-1411
1280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총대 65)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영역가공

Town Gate Cleaner, Inc.
한재혁(인문대 82) (851) 656-9780
13225 Frederick St. #1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성형성(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Jade Textile, Inc.
왕예진(총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Your Choi's Dental
최종훈(치대 70) (323) 56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9639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근국 교정치과
권종민(치대 65) (818) 248-0124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심락호 치과
심락호(치대 65)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 866-6914
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성 치과
송은성(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신우석 치과
신우석(치대 59) (714) 540-5151
2112 S. Bristol St. Santa Ana CA. 92704

강민권 치과
강민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 #300 Los Angeles CA 90020

남동진 치과
이범오(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 #207 LA CA 90016

이광훈 치과
이광훈(치대 67) (626) 912-6557
15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 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조광재 치과
조광재(치대 82).....(562) 696-3334
8330 Painter Ave. #B Whittier CA 90602

의약/내과/산모의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필영 심장내과
* 김필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9 Los Angeles CA 90020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장민영(의대 76).....(213) 480-7770
520S. Virgil Ave. #103 LA. CA. 90006

South Bay Cancer Center
나창지(간호 70)
310-978-6970 310-543-5327
1400 Hawthorne Bl. LA. CA 9026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69) (909) 620-1975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훈(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대란(의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종구(의대 80) (213) 39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im, M.D.
윤용호(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8

S.J. Whang, MD, Medical Group
백석우(의대 53)
1325 Via Del Reg. South Pasadena CA 91030

Kaiser Permanente
니두삼(의대 66) (909) 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A-HNN, WILLIAM, M.D
안병환(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83) (818) 375-288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개조업/태생업
New Pride Corp. (다이어)
김관영(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Dale Tiffany, Inc. (친견전문)
정예민(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재조업/냉장고·상업용
사치현(의대 69) (910) 719-5422
3421 Oquirrid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훈(의대 63) (626) 941-0565
9625 Painter Ave., Suite#1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의대 54) (323) 232-1233
1600 E. 29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근성(농대 65) (714) 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산맛프로미
한국로미피
박익동(분리대 61) (213) 340-2775
3475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교 원(광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심서정로교회
* 니안우(광대 65) (310) 515-7207
1653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앨리스산교회
임대수 (총대 8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뉴 샬럿 한미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6th. #101, Los Angeles, CA 90005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하영진(의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트렌스조운교회
김희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리조트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8) (213) 725-3644
45100 Capoo Ave. Gorran CA 92343

컴퓨터/컨설팅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415) 750-0533
288 Bush St., #3949 San Francisco CA 94104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안병의원/안약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학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8 Stanton, CA 90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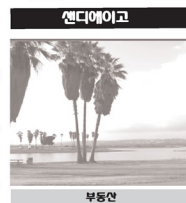
식품/음식점
용수산 Yong Su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99-0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장수장 Jang Soo Restaurant
310-327-9292
1404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

마포 주물럭 Mapo Korean BBQ
Restaurant (310) 679-3622
14939 S. Crenshaw Blvd. #102 Gardena CA. 90248

자연나래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 5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백화문순두부 213-382-6660
이대호(보통) 1413 S. Vermont Ave. L.A. CA 90006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은희 (84총합) (866) 525-3222
4228 Conroy St. San Diego CA 92111

수익사/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현(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부동산
정연진 (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두리하나 결혼정보
한진진 설립에 한해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공
율과 많은 젊은, 재혼자, 미혼. 서양대 동문
과 동문자녀 특별 할인. 장사(신상) 599
(910) 224-070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duriana.com

수익사/동물병원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범(수의대 67) (310) 3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Hillview Pet Hospital
김희현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의약/산모의/계/산모의
박희래 한의원
임희재(간호대 73) (818) 816-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818) 482-292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MD,VA 워싱턴DC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북핵(경매) 84(301) 279-6969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공인연계사

Lee Kyu Sup, CPA
 이규환(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2936

Choi & Co., CPA
 최 현(상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재산관리

IPM Wooth Management
 이태영(상대 60) (410) 777-8061 ext158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북핵(상대 84)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변호사/법률사무소

Moon-Park & Associates
 박상근(상대 75) (703) 941-7395
 7017 Little River Traps #30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신광섭(상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장계업

BPS Appraisal Company
 박병남(상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연세나여름/양공

Driveteck, Inc.
 * 양달원(상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수익자/동일방행/요역업

한익성(수익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우래옥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내과/진료의/치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9 St. Rosvoluta Office Building #46
 Baltimore, MD 21211

도상철(의대 63) (410) 760-68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iatric Center
 임달문(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tiz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ro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완성 (분리 55)
 7601 Little River Tr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
 658-9110 hanstravel.joanne@gmail.com

이준영 치과
 이준영(의대 74) (301) 220-2828
 8201 Greenbelt Rd.#1U-1 Benwyn Heights, MD 20740

임보리 여생사
 임 국(해대 75) (703) 242-0590
 2915 Hunter Mill Rd. #6 Oakton VA 22123

통일시대연구소
 이명환(의대 9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FL 플로리다

라태양리/주요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의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FOB Synthesis Inc
 최우택(의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상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Good Nutrition
 김안백(해리 72),김광주 (법대 73),
 문순환 (사학대 84) (770) 992-2363
 483 Beaver Run Rd, Norcross GA 30071

김홍

Metro City Bank
 박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034

리태양리/사무대

NYTown.com(관리인교과)
 조익성(상대 76)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일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장승규(의대 50) (773) 285-8908
 48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연계사

이상구 공인회계사
 이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연 본

Korean World Times
 오영 (해대 78) 201-840-8043
 605 Broad Ave. #206 Ridgefield IL.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의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병현(의대 55) (773) 583-3049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장계업/재정상담

Green Realty, Inc.
 강정필(수익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ty, Inc.
 송병현(상대 76) (847) 399-3100
 6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상대 68) (630) 207-2515
 24 Con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로영 부동산
 영유복(분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셀리 경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주부 70)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익자/동일방행

Munster Animal Hospital
 함태성(수익 63) (219) 924-0101
 10421 Cabern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wood Ani. Hosp.
 강영호(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내과/진료의/치과

Elgin Cardiac Sugery, S.C.
 임원재(의대 59) (847) 695-1620
 조호영(의대 8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Suh Sang Hun, MDCP
 서상훈(의대 65) (71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 이준우 치과
 이준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심재희 치과
 이재희(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Orchard Shopping Center.#426 Skokie IL 60077

약업/문약업인

RFUMS /Chicago Medical School
 강영범(의대 54) 847-578-6847
 3333Green Bay Rd. N. Chicago IL 60064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황성택(분리 55) (847) 508-1190
 6930 W. Touhy Ave. Chicago IL 60635

MA 뉴잉글랜드

병원/수익자/동일방행

Twin City Animal Hospital
 유상근(수의 62) (8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강일권 산부인과
 강일권(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8

JK Realty Trust 김재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8 Brookville MA 02446

MI 미시간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회관
 잔숙연(분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의료/내과/진료의

Kent Pathology Lab
 김재철(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9+ Grand Rapids MI 49546

Genesi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803

이한준 심장내과
 이한준(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호은 심장내과 C. A. V. A
 황윤리(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희(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chapel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철(의대 58) (269) 427-5304
 P.O. 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니소타

HDM Inc.
 김양희(상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Evs Inc.
 김경희(의대 61) 952-646-0238
 10250 Valley View Rd. Suite 123 Eden Prairie
 MN 55444

Cardiovascular Division Univ. of Minnesota
 Medical School
 양국현(의대 56) (402) Delaware St. SE. Mayo Mail Code 508
 Mpls MN 55455

NJ-NY 뉴욕/뉴저지

건축

!! 양, 애디즈 !! 한안수(사대 73)양생권(사대 71)-
 702-0812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포도) 뿌리
 배양 성공, 2012년 11월 Nature지 논문 발표.

건축/일계

김세환 건축설계
 김사훈(상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남궁택 설계사무소
 남순우(상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공인연계사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Edward CM Kang CPA
 강종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형준(상대 65) (212) 219-4151
 1270 Broadway, Suite 505
 New York NY 10001

Wesley Y. Chung CPA
정일봉(상대 55)
6385 Whitestone Place
Duluth GA 30097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상대 64) (212) 760-1768
38 W 52nd Suite #503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사무소
문주환 (경제대 88) 718-982-4444
150-13 Northern Blvd 2nd Fl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성(상대 64) (201) 869-2255
6135 Bergantine Ave. #2 W.

Young Sik Oh, CPA
오영식(상대 72) (201) 569-1177
333 Spring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8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상대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금융/재정관리

Genko Financial
유호근(상대 71) (201) 945-462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Y 07650

리태리더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Sun Furniture
장문영(상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상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Sons Pwimbroskers Co.
곽선성(상대 61) (973) 345-0063
72 Broadway Paterson NJ 07055

Caps Unlimited
김병수(상대 70) (718) 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광고/지역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병영(상대 81) (212) 967-0874
990 8th Ave. #6M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연병철 변호사
* 연병철(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조대형 변호사
* 조대형(문리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E New York NY 10018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 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 #1105
New York, NY 10018

Deloitte & Touch
김영희(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우(법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Weinstein, LLP
김원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Y 07650

신윤남 변호사
신윤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on, Attorney at law
유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60 Lemoine Ave. #9 Fort Lee NJ 07024

무용/음악연가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EAC Trading, Inc (전기 부품)
윤정목(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부동산/중개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 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 944-4949
26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다니엘게일 스테디 부동산
이영숙(상대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J 11576

Re/max Diamond
류재문(미대 71)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문길(상대 69) (718) 224-3306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희환(문리 58) (718) 268-2553
23 Brie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서비스/업/법인

Women In Need Center
무지개의 집 여성 임시숙사
김은경 (음대 82)
P.O.Box 54369 Flushing NY 11354

XenoSiotic Lab, Inc.
김태현(상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boro NJ 08539

IBECONS Int'l
김태희(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9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유일 자격제 (사회, 사학, 통역관광(사) 및 심포자 - 상, 중, 저급 코루트 투어 *국립공원 안내 투어 *관광 항공권 800-229-6257 / Fax: 212-229-0989 워싱턴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01 arirangtravel@gmail.com

서비스 / 물리나 / 장공정

C & K Dry Cleaner
김진식(건조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석(상대 63)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hamp Malton NJ 08003

Alco Lock & Safe, Inc.
장인규(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rysler Building Arcade NY

수익/스포츠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브그던 글러센터
김나기(상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003

언론/안면

Radio Korea NY
권영진(상대 69) (718) 358-9300
136-58 36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홍상우(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서구(상대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 / 공연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유흥/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 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Pa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현배(공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운송 / 유통 / 통관

Kiss Products, Inc.
김광호(문리 62) 516-625-6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중앙장사
(Central Funeral Home)
하혜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Ave.Flushing NY 11355
www.centrafuneral.com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재진 심장내과
이재진(의대 59) 718-426-6464
37-24 75th St. Jackson Heights, NY 11372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6-23 74th St. Eastnut NY 11373

방준태(의대 63)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Ob & Gynecology
송준호(의대 59)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철(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임대목(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방병기 일반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ks Crossing Rd., # 720 Palisades NJ 08536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서창호 위장내과
서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8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김강호(상대 65)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자 전문의료원
김현희(의대 69) (718) 26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치 의원
최창희(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연희 산부인과
김연희(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병철 소아과
박병철(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홍(의대 56) 소아과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정지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8)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광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학삼(의대 73) (201) 568-3800
 39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co.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홍(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more NY 11710

곽승철 정신과
 곽승철(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6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Stan S. Choi, M.D.
 최승훈(의대 61) (908) 78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 / 내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의대 64) (914) 997-0812
 185 Ma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희 치과
 이종희(의대 62) (212) 947-4742
 296. 325f. #501 New York NY 10007

이성길 치과
 이성길(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의대 67) (718) 898-9049
 46-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흥환 치과
 조흥환(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두수 치과
 원두수(의대 61) (718) 979-7277
 2799 Hyatt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의대 68) (718) 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 / 약국

Merrick Chemists
 이송우(의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의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의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의대 58)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의대 67) (212) 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호(의대 57) (718) 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계좌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의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u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형(상(대 8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병원 / 진료방

Hanco Service LLC
 조한수(시(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Y 07652

종교 / 교육

트윈교회
 김상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학연

Cooper Art
 손승욱(의대 71)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연/연수교실)
 진봉원(의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석교실
 조달훈(시(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연인연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의대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의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Y 07652

NV 내과다

의료 / 외과병원

Best Care Dental
 김영순(의대 68) 702-394-2328 702-460-7115
 20555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www.bestcardental.lv.com

애 오아미오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민(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0 Lima OH 45805

Charles Sung 수의병원
 송충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 / 내과 / 전문의

Lancaster Radiation
 조희봉(의대 68) (614) 556-9506
 401 North Ewing St Lancaster OH 43130

OK 아틀랜드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405-604-4005
 50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광(의대 72) 918-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

OR 오레곤

* 열혈 한인교인
 최준명(보(대 61)) 503-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준명(보(대 61)) (215) 411-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생물(대 77)) 494-342-0200
 250 Township Line Rd. Ste. 100 Blue Bell PA 19422

광안리개사

Choi & Co., OPA
 *최한(공(대 66)) 302-636-0900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wj11

김영 / 보영 / 리태일
 More Bank 정영숙(상(대 61)) 267-251-720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원광숙(문리 58)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te. 150 Norsham PA

베어리빙턴 / 리태일 / 김약
 Jay & CO
 재광현(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수익사 / 동물병원

CHEL-WAYNE Animal Hosp.
 임성숙(수의 63) (215) 943-593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용민(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욱(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sdowne 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임영순(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연인양 / 요악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유진(상(대 58))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19401

의료 / 약국

쌍둥이 약국
 허정기(약(대 67)) (215) 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 / 내과 / 전문의

Yung Do Song M.D.
 송영득(의대 56) (215) 342-2150
 6816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ci
 김경남(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영순(의대 65) (302) 731-7037
 774 Christina Rd.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양순(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민(약(대 56)) (215) 641-5323
 7170 Lay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국 정형외과
 문대국(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 / 내과

김중규 치과
 김중규(치(대 63)) (215) 745 - 6123
 6725 Cen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215) 294 - 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TX 유스틴

수익사 / 동물병원

신구 동물병원
 이윤순(수의 81) (281) 395-0700
 24210 Westheimer Pkwy # 300 Katy TX 77444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8) (281) 343-5455
 7333 N. Freeway Ste. 260 Houston TX 77076

김우 / 시흥 / 권선희
 선백길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환(공(대 69)) (281) 677-6473
 166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원유개발 컨설팅
 연유 Petroleum Inc.
 양인성(공(대 50)) (832) 722-0075
 3131 Rosemary Park Ln. Houston TX 77082

명연사

한국 장의사
 조시호(문리 59) (281) 530-5400
 1340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63

UT 유타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Tour
 박동수(공(대 60)) (801) 263-8886
 232 E. 3000 South Salt Lake City UT 84137

“동문 업소록을 재정비 합니다!”

동문 업소록은 동문들의 여러 사업 내용을 미주 각 동문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업소록에 게재되는 동문들 중 일부가 보내오는 광고비는 동창회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문들은 업소록 게재에 두 불구하고 광고비를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메일로 우송해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광고비를 내는 동문들에 대한 업소 게재는 보다 디자인을 확대해나가는 반면 광고비를 내지 않는 동문들의 업소는 삭제해나갈 계획이니 이 점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WA 워싱턴주

역목 / 재과 / 관리자

박정철 내과(철역중앙 병원)
 박정철(의대 62출) 315-941-9535
 22226 Cliff Ave. So.#304 Des Moines WA 98198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의대 61) (360)254-5900
 21796 136th Ave.Sul#101 Vancouver WA 98684

Painless Clinic
 신창철(법대 73) 425-228-7446
 947 Powel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개업사 / 개기

The Boeing Company
 김재홍(공대 72) 425-373-2828
 PO Box 3707 MCL-49 Seattle WA 98124

정물병원

Federal Way Anl. Hospital
 이숙영(수외대 75) 253-529-0306
 1700 S.305th Plca. Ste A Federal Way WA 98003

컴퓨터 /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WA 위스콘신

Gundersen Clinic
 윤준(의대 61)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편집후기’

우정의 마음이 태양양 바다를 메운다

미주 동창회에서 일한지도 5년이 넘는가 봅니다. 여러 일을 배워온 미주 동창회 일꾼은 애뜻한 나의 대학 시절을 그리며 해주는 만담의 장이 되어, 가장 소중한 보람이 되게 해줍니다.

처음 이루어져 27년간 한국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애국의 긍지를 잃고 보람을 잃었듯이, 미주 동창회의 인도와 보람 만드는 조공이나 나의 정성됨은, 매달 나오는 회보의 연결상에서 서울대인의 긍지를 느끼게 일하게 해줍니다.

동문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지는 데일출근 사무실로 가기 전에 Mail Box 를 열어 보면서 질서히 느껴집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어느 동문인가는 서울대를 그리며 그나마만 기부금을 모내 줍니다. 나는 매일 매일 그분들께 "Thank you" 하며 감사드립니다.

‘우정의 마음이 강물을 메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전역에 동문님들의 우정을 담은 소중한 동창회보를 통하여, 멀리서 소식을 잘하며 소속감을 느끼며, 외롭지 않게 동창회가 아님을 느끼며, 그 우정의 마음이 태양양 바다를 메우게 해줍니다.

우리는 바라는 바는 청문도 연필도 더 더욱 발전되어 집니다.

나를 키워준 서울대학교, 우리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각자의 분야에서 보람하며, 그 위상과 자부심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며, 우정을 나누어 함께 창사를 모입니다.

<백록재(의대 71)미주 동창회 총무직>

각 지부 회장단	
남가주	회장 서치원(공대 69입) 310-719-5422 charliesuh49@gmail.com 자기회장 김상진(문리 66입) 714-396-0493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president@snuua-nc.org 자기회장
뉴욕	회장 김청수(약대 64입) 212-760-1788 changsookimcpa@hotmail.com 자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최선주(간호 68입) 781-674-2498 youngpark@yahoo.com 자기회장 장수인(음대 76입) 978-264-2988 sooinhnee@comcast.com
달라스	회장 이준(공대 73입) 469-235-6196 junelee41@yahoo.com 자기회장 윤수경(음대 77입) 972-248-8811
특키 마운틴스	회장 표한승(치대 58입) 303-8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자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정은옥(간호대 75입) 763-773-7227 sallykim75@yahoo.com 자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서정용(공대 81입) 858-740-4843 cysuh72@gmail.com 자기회장
시카고	회장 김영호(의대 71) 760-922-0748 fhcnclUSA@gmail.com 자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원환(문리대) yhoan@rathoon.com 자기회장
알래스카	회장 류재중(농대 55입) 907-223-0887 jaejoon@hotmail.com 자기회장 배석현(농대 58입)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이석진(공대 89입) 503-317-5625 seokin@gmail.com 자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wonson314@aol.com 자기회장
워싱턴DC	회장 송상희(문리 71입) 703-483-0801 503-0864 sanhois@yahoo.com 자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유석진(문리 64입) 425-670-9067 sock@rocket.com 자기회장
유타	회장 배유현(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e@yah.edu 자기회장
조지아	회장 박민(음대 80입) 770-449-0000 minpakng@yahoo.com 자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es@noabank.com
중부서비스	회장 이명재(상대 58입) 512-561-7739 267-962-1077 yjeel1102@yahoo.com 자기회장
필라델피아	회장 추기록(수의 68입) 215-990-8717 kmjco47@yahoo.com 수석부회장 김정현(공대 68입) 484-744-6785 dhk064@gmail.com
플로리다	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park@daum.net 자기회장
캐롤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330-6451 khk@ncsu.edu 자기회장
하와이	회장 김용수(수의 75입) 808-394-2369 ykim@hawaii.edu 자기회장
하들랜드	회장 구명순(간호대66입) 913-268-9228 chungmg@yahoo.com 부회장
휴스턴	회장 박순덕(사대 58입) 713-984-2066 taksoond@yahoo.com 자기회장 이호성(공대 72입) 281-877-6584 hiee@eagle.org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광호(농대 62입) 604-250-0181 604-521-3009 khlee614@naver.com 부회장 조석기(상대 71입) 604-688-4039 서명희(미대 71입) 778-322-7732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홍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o@hotmail.com 부회장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김수성(의)·이병준(상)·오인석(법)·이용락(공)·오홍조(사)·이정묵(공)·이찬구(농)

영예회장: 송순영(문)

제11대 회장: 김은중(상)

자기 회장: 오인환(문)

관악우회 부회장: 노영태(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성주영(상)
 총무국장: 박복자(음)
 재무국장: 장석현(상)
 사업국장: 이경희(농)
 성외국장: 이상대(농)
 강사: 김영남(농)·박필영(농)
 기업교양부장: 이홍도(공대)
 IT개발위원장: 김영연(공대)

회보 임원

발행인: 김은중(상)
 상임고문: 박석훈(농)·김건진(문)
 편집위원장: 지민수(상)
 편집주간: 이기훈
 편집위원: 조홍준(의)·박양홍(문)·김재영(농)·나철상(문)·이홍도(공)·김지영(사)·김성수(문)·이영환(문)·김홍희(인문)

논설위원

김일홍(CH)·김기태(LA)·조동준(LA)·최홍환(LA)·박순(WA,DC)·육길영(CH)·이형광(LA)·정홍택(PA)·윤상래(NE)·김정영(NY)·임승훈(SF)·정석경(CH)·이석구(NY)·정요진(LA)

논설위원회

위원장: 서준민(공·PA)
 위원: 한재원(의·L)·이민인(법·TX)·윤상래(수의·NE)·김지영(사·LA)·선영남(농·NY)·함은선(법·WA)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이거준 편집주간 snuausaik@gmail.com
·인쇄· Chana Times Printing, INC.
 445 Madra Dr., San Gabriel, CA. 91776
 Tel 626-308-2037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상대 74)

www.jayone.com | 952-933-7960 | 952-933-7974

facebook.com/jayonefoods | twitter.com/jayonefoods | youtube.com/user/jayonefoods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강남회관

Kang Nam Restaurant

(Tel. 323-937-1070)

4103 W. Olympic Blvd. LA. CA 90006

www.duo.co.kr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문리대 82) Since 1995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듀오에는 행복한 커플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대표이사 김혜정(82, 문리대)

- **산타가 전해주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12월의 믿음, 사랑, 기쁨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 **배우를 키울때부터**: 결혼하기 전에 배우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중한 인연을 만듭니다.
- **동양에 대한 프로그램**: 귀국하고 재취업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 **한국 취업안내**: 본국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2년 안에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 미주지사 213-383-0077 /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12-947-2626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800-275-2525

Welcome to Cinco Animal Hospital!

24210 Westheimer Pkwy, Ste 300, Katy, Texas 77494

Meet the Staff

Find us on Facebook

Schedule an Appointment
Call 281-395-4700

Have a Question? Ask Dr. Lee

Get Directions to Cinco Animal Hospital

ADMIT ONE
Take A Tour

Lost & Found!

Click here for information on pets who are missing or have been found.

이운성(수의대 81)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및 기금 모금 친선 골프대회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주최의 'Brain Network Workshop' 과 이를 돕기 위한 기금 모금 및 친선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9월 22일(토)에 열리는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은 현재의 남북 관계와 앞으로의 통일 전망을 중심으로 3분의 석학께서 강연을 하게 되며, 이에 며칠 앞서 9월 19일(수)에는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및 제3, 제4의 후속 Brain Network Workshop 개최를 위한 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동문을 위한 행사 차원을 넘어 전체 재미 동포 여러분과 함께 친교를 나누며 단합하고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계속 모시고자 하오니, 계속되는 행사에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많은 관심과 조원을 부탁드립니다.

골프대회일시

- 일시 : 2012년 9월 19일(수)
Tee Off : 1 PM
Dinner / Award Banquet : 6 PM.
- 참가인원 : 20명 한정
- 장소 : Wilshire Golf Courses & CC
301 N. Rossmore Ave. LA. CA. 90004
Tel. 323-934-1121
- 참가비 : Donation 원칙으로 고객 기여자 순서로 20명
Out-Off. Payable to: SNJAA USA. (면세혜택)
- 문의 : 서울대 미주 동창회(Tel.310-615-7888)



골프대회조직

- 대회장 : 김은종(미주 동창회장)
- 명예대회장 : • 준비위원장 : 지인수
- 조직위원장 : 성주경 • 섭외위원장 : 백옥자
- 홍보위원장 : 김병연 • 경기위원장 : 강호석
- 재정위원장 : 이종도 • 감사 : 김재영·박명일
- 역대 회장 : 박윤수(문)·강수상(의)·이병준(상)·오인석(법)
 ·이용락(공)·오홍조(치)·이영록(공)·이진구(농)
 ·송순영(문)
- 수석부회장 : 오인환 • 관악후원회 부회장 : 노명호
- 서울대 미주 및 캐나다 각 지역 동창회 및 회장
▶ 남가주(서치원) ▶ 북가주(이장우) ▶ 뉴욕(김광수) ▶ 뉴잉글랜드(영선주)
▶ 달라스(이준) ▶ 록키마운틴스(표환승) ▶ 미네소타(정은옥)
▶ 샌디에고(서정용) ▶ 시카고(김영호) ▶ 메리조나(오윤환) ▶ 앨리스카(윤재중)
▶ 오레곤(이석진) ▶ 오하이오(송원길) ▶ 워싱턴DC(송상희)
▶ 워싱턴주(윤석진) ▶ 유타(배유환) ▶ 조지아(박민) ▶ 중부텍사스(이영재)
▶ 필라델피아(주기목) ▶ 플로리다(박창길) ▶ 하와이(김용수)
▶ कै롤라이나(김기현) ▶ 하틀랜드(구명순) ▶ 휴스턴(박순덕) ▶ 캐나다 밴쿠버(이광호) ▶ 캐나다 앨버타(조용희)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 일자 : 2012년 9월 22일(토)
- 시간 : 9:30 AM~3:30 PM(중식 제공 12~1PM)
- 장소 : JJ Grand Hotel, Banquet Room
620 S. Harvard Blvd. LA. CA.900005
Tel. 213-383-3000
- 참가비 : 무료, 단 참석 인원수 제한(RSVP)
- 주제강연
 - ▶ '남북 관계의 현황과 통일 전망'
하들름 교수(Univ. of Washington)
 - ▶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고병철 명예교수(Univ. of Illinois at Chicago)
 - ▶ '통일을 위한 역사적 시각'
이재진 명예교수(Claremont McKenna College)

벤츠 E-클래스



출인원상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회장 김은종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